

히든 페이스

202107

1. 안방

먼저 소리들이 선행한다. 걸어오는 소리. 잠시 멈춰서서 정적. 한숨 소리. 스티커종이 같은 것이 뜯겨 지는 소리. 작은 기침 소리. 컴퓨터가 부팅되는 소리. 그러는 동안 크레딧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곤 한다. 그리곤 좀 힘주어 키보드를 내려치는 소리. 화면이 시작된다.

노트북 화면에 수연이 떠오른다. 울음을 애써 참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억지웃음을 지어 보인다.

수연/ 나야 성진씨. 좀, 놀랐지?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려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

성진씨 얼굴보면 결심이 약해질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있잖아, 나... 지금 다시 떠나는 중이야. 베를린으로.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잠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보고) 그냥 성진씨와 관계가 자신이 없어.

그렇다고 성진씨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는 건 아냐. 모든건... 내 문제야.

(다시 눈을 들어 카메라를 응시하며) 성진씨하고의 관계가 확신이 없어.

성진씨를 모르겠어. 나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안달복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모든게 의심스럽고, 걱정 되고, 화가나. 그래서 괴로워. 나, 너무 괴로워, 지금.

노트북 앞에 서서 한쪽팔은 팔짱을, 다른 팔은 그 팔에 기대 턱을 고이고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는 성진. 약간은 낡은 스웨터에 코르듀이 바지의 조화가 지적이고 분위기 있게 보이게 한다. 화면 안의 수연이 눈물을 닦자 성진도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헝크린다.

수연/ 난 사랑에 자격이 없는거 같아. 마음이 너무 격렬해.

성진씨처럼 담담해야 하는데, 난 그러질 못하겠어. 성진씨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떠날게. 그동안 성진씨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앞으로도 그 기억으로 행복할거야.

그러니까... 성진씨도 행복하게 지내. 알았지?

화면속의 수연이 작게 손을 흔든다. 그리곤 입모양 만으로 ‘안녕’이라고 말한다. 그러더니 화면이 종료된다. 잠시 빈 화면을 노려보던 성진이 방을 나가버린다. 그러자 성진의 등 뒤에 가려져 있던 거울에 침대 위에 놓인 노트북이 보인다. 그리고 화면의 여백에 크레딧이 썬다.

히든 페이스

2. 오케스트라 건물 주차장

주차하고 내리는 성진. 서로 각자 연습하고 있는 악기 소리들이 배경처럼 깔린다.

3. 오케스트라 건물 로비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진. 계단을 올라가자 악기 소리가 훨씬 커진다. 이층 연습실 입구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악장과 단원들을 보고 성진이 멈춰선다. 인사를 하는 악장과 단원들, 뭔가 성진의 표정을 재미있다는 듯이 관찰하는 느낌이다. 건성으로 인사를 받고 스쳐 지나가려는 성진을 불러세우는 악장.

악장/ 저, 지휘자님.

성진/ 네?

악장/ 첼로 문제 말씀인데요,

계속 한 자리를 비워 두고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해서요?

성진/ ...

악장/ 더 민감하게 느끼시겠지만 뚜띠에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다들 모른 척 하고 하고는 있는데, 악장으로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성진/ ...

단원들이 더 흥미로운 표정으로 코너에 몰린 성진을 관찰한다. 악장은 머리로 적당히 벗겨졌고 얼굴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하지만 눈은 하나도 웃지 않고 있다.

성진/ 곧 해결하겠습니다.

악장/ 어떻게 하시려는지... 기다리시겠다는거면... 제가 사생활을 관여하려는 건 아니고요.

공과 사는 구별 되어야 하지 않나...

애인을 기다리는 남자와 이탈한 단원을 기다리는 지휘자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하는...

물론 당연히 기다리고 싶으시고, 또 그래야 할 입장이지지만,

성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야할 입장이라고요, 제가?

악장/ 아?? 별 뜻 없이 말씀드린건데?

악장의 얼굴에 더욱 자애가 가득해진다. 뭔가 말하려다 자기 방 쪽으로 가는 성진. 뭔가 뒤에서 비웃는 느낌에 돌아보고 싶지만 참는다.

4. 오케스트라 연습실

악기 조율과 연습소리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성진의 타이트한 옆얼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얼굴에서 점차 파이터같은 카리스마와 전투력이 깃든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내뿜고는 지휘봉으로 가볍게 보면대를 친다. 일순 악기소리가 찾아들더

니 작은 기침 소리만 들린다. 김승같은 기세로 오케스트라를 훑어보는 성진, 그러나 목 소리는 낮고 다정하고 달콤하다.

성진/ 자, 시작해 봅시다. 시작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같은 시기에 우리의 음악을 들으러 오는 분들은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합시다. 자, 저번에 마친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진의 지휘봉이 묘한 각도로, 묘한 속도로 올라간다. 그리곤 잠시 정적, 그리곤 갑작스 러운 총주. 지휘할 때의 성진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뭔가 일방적이고 뻔뻔하다. 각 파트 를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어르고 달랜다. 어딘지 소극적이고 개인적이었던 첫인상과는 다르다.

클라리넷 독주부분을 느끼며 지휘하는 성진.

다시 총주. 성진의 지휘봉이 검처럼 허공을 베고 가른다. 성진은 미친 사람같다. 음악이 끝나자 성진이 조금은 가쁜 숨을 내쉬며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 머리칼이 조금은 젖은 느낌이다.

성진/ 조금 쉬었다가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부터 다시 해봅시다.

단원들이 부시럭거리며 움직이고 성진은 계속 악보를 보며 땀을 닦는다. 옆에 물병을 들 어 물을 마시는데 악장의 목소리가 딱 성진의 귀에 들어올 만큼의 크기로 들려온다.

악장/ 역시 뚜띠에서 현 파트가 밀리지?

단원/ (악간은 성진을 의식하며)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악장/ 밀린다니까. 첼로가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건데.

이 시기에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건데... 하... 다 눈치채지. 걱정이네.

악올려놓고 화장실을 가는 악장의 뒷모습을 노려보는 성진.

5. 단장실

성진의 앞으로 밀어지는 커피잔. 어깨에 목을 에르메스 스카프로 절묘하게 감싼, 사십대 처럼 보이는 육십대의 혜연이 커피를 내리고 있다.

혜연/ 게이샤야. 이번에 로스팅이 절묘하게 되었다구 자랑질 하며 보내던데 한번 마셔봐.

성진/ (커피를 한모금 마시고)

혜연/ 어때?

성진/ (웃으며) 저 물맛 잘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혜연/ 하이고 참 빈말 못해. 그냥, '어? 꽃향이 진짜 진하네요?' 이러면 되는건데.

성진/ 지금 이거 꽃향 나는거예요?

혜연/ 됐어. 담배 필래?

성진/ (거절하며) 또 실패하신 거예요?

혜연/ (허공에 길게 뿜는 연기) 수연이 그런 날, 자기 전화 받고 바로 피우기 시작했지.

이제 피다 죽을라고.

성진/ (커피나 한모금)

혜연/ 내가 잘 못 키워서 그래. 아니면 잘 키웠는데 내 성격이랑 똑같아서 그렇던지.

둘 다 내 잘못이지 뭐. 아직도 아무 연락 없지? 열흘 된건가?

성진/ 네...

혜연/ 너무 걱정하지 마. 곧 비시시 들어 올거야. 봉신처럼.

참, 첼로 하나 오늘 면접 보러 오기로 했어.

(손목시계를 보더니) 응, 지금 자기 방에 와 있겠는데?

성진/ 면접요?

혜연/ 응. 공연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이번엔 성질 머릴 고쳐 놓아야지.

무슨 지가 첼밥통인줄 알아. 오너 딸이면 다야?

문제 생기면 지도 바로 잘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어여 가봐, 엔간하면 쓰는 걸로 하고.

성진/ 네.

일어서 가려는 성진에게.

혜연/ 그리고 다음엔 그런 얘기는 나한테 직접해. 악장 통해서 들으니까 좀 섭섭하더라구.

성진/ 무슨 얘기...?

혜연/ 더 이상 기다려 주기 어렵다는 말... 대체자를 뽑아야 한다고 서둘렀다며?

그래도 나도 에미라 그런지 자기 입장 알면서도 섭하더라구.

생판 남인 악장도 더 기다려보자고 안타까워 하는데 말이야...

모함에 울컥해서 뭔가 변명하려다 관두는 성진.

6. 건물 복도

누군가 혼자 남아 연습하는지 바이얼린 소리가 들려오는 복도, 성진이 힘없이 걸어가고 있다.

7. 지휘자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성진, 잠시 멈칫하고는 천천히 문을 닫는다.

방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있던 미주가 주춤거리며 일어선다. 미주 옆에는 미주의 첼로가 기대어져 있다. 앉아 있으라고 손짓하며 무심하게 자신의 책상으로 가는 성진. 책상 위

에는 미주의 프로필과 심플한 USB가 놓여있다. 선 채로 미주의 프로필을 훑어보는 성진. 그러면서 미주를 쳐다보지 않고 살핀다.

평범한 회색 원피스에 검은 색 가디건 그리고 역시 검은색의 굵 낮은 구두. 머리칼은 의외로 굵은 펌의 풍성한 물결이다. 별로 긴장한 것 같지도 않은 상태로 무심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다. 프로필을 든 채 맞은편에 앉는 성진. 미주가 다시 작게 목례를 한다. 새하얀 얼굴에 화장기는 전혀 없다. 성진은 다시 프로필만 본다.

성진/ 수연이... 아시겠네요? 같은 예중예고에 나이도 같고...?

미주/ 네 동창이에요. 막 친하진 않았지만.

성진/ 네...

미주/ 사실, 여기 지원한 것도 수연이가 저저번 주에 갑자기 전화해서, 여기 자리 날 거라고 얘기해줘서...

성진/ 저저번 주예요?

미주/ 네.

성진/ 다른 애긴 없었고요?

미주/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몇 년만에 전화해서 저도 얼떨떨했거든요. 그닥 친했던 사이는 아니어 가지구... 의외기도 하고...

성진,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만지작거린다.

성진/ 이건 본인 연주?

미주/ 네.

테이블 위 노트북에 꽂아 재생시키는 성진. 미주는 또다시 남의 일로 온 사람처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앉아 있다. 성진은 음악을 들으며 미주를 자세히 본다. 미주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마주보지 않는다.

성진/ 슈베르트. 아르페지오소나타.

미주/ (어색한 미소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성진/ 나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미주/ ?

성진/ 슈베르트는 클래식 작곡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 곡은 그야말로 팝송이에요.

어떻게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겠다는 분이 이런 곡을 들려줍니까?

미주/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요...

성진/ 왜요? 좋아하시는 서태지 거를 연주해서 들려주시지? 비티에스나?

미주/ 그리고 저는 슈베르트를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제일 슬퍼서요, 음악이. 듣고 있으면 음악이 너무 슬퍼서 제가 안 슬퍼져요. 그래서 제일 좋아해요.

성진의 노트북에서 USB를 뽑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미주. 그리곤 일어난다. 첼로를 챙겨 매며 성진을 내려다보는 미주.

미주/ 프로필은 놓고 갈테니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유에스비도 놓고 갈게요.

안에 거 다 지우고 공인인증서 담으세요. 아, 요즘은 안 쓰는 추세지. 그냥 버리세요.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요. 지휘자님.

당황한 얼굴로 미주를 보고 있는 성진. 첼로를 영차 맨 미주가 방을 나간다.

(점프)

블라인드를 손가락으로 벌려 밖을 내다보는 성진. 주차장에 있는 작은 차 뒷좌석에 겨우 첼로를 넣고 출발하는 미주. 계속 보고 있는 성진.

8. 성진과 수연의 저택(이하 저택)

어댑터에 끼어 있는 미주의 USB. 선을 따라가면 세면대에 놓인 아이패드. 미주의 연주가 욕실 안을 채우고 있다.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있는 성진. 허공의 어느 한점을 응시하고 있다. 욕조 맞은편에 벽에 부착되어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다.

(점프)

세면대 거울을 보고 있는 성진. 두 개의 개인 세면대 중에 성진의 것인 듯, 니베아 로션과 향수 한 병만이 놓여있다. 로션을 바르는 성진. 음악을 끄고 USB를 빼서 욕실을 나간다. 이제 텅 빈 욕실. 그때 성진이 그냥 두고 간 욕조의 물에 문득 잔 파문이인다. 그냥 물 한 방울이 떨어진 때문 같기도 하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 같기도 한 파문이인다.

9. 변두리 학원 건물, 학원

마지막 학생이 인사를 하고 나간다. 몹시 지친 표정이 되는 미주. 허리를 두드리며 가방을 뒤적여 담배를 찾아 든다. 학원 창을 열면 썰렁한 변두리 주택가의 풍경이 펼쳐진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미주. 문득 건물 앞에 주차된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에 눈길이 가지만 곧 관심을 거두고 다시 고개를 들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다.

(점프)

아이들이 어지럽힌 물건들을 대충 정리한 미주, 백을 메고 학원 내부를 둘러보고는 불을 끈다.

10. 학원, 계단

계단을 내려오던 미주, 계단참 학원 홍보물 책상에 기대 있는 성진을 발견한다. 놀란 표

정으로 멈춰서는 미주. 성진도 기댔던 몸을 똑바로 세우며 훑어보던 팔플릿을 내려놓는다.

미주/ 여긴... 어떤 일이세요?

성진/ 프로필 보고... 갑자기... 실려된 건 아니죠?

미주/ (고개를 젓고)

성진/ 낮에는 내가 너무 무례했어요.

다른 일로 기분이 나빠 있었는데 미주씨한테 화살이 간 것 같아요.

사과하러 왔어요. 미안합니다.

미주/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들일게요.

성진/ 그리고 연주도 좋았어요.

미주/ 유행가라면서요.

성진/ 유행가 지만... 좋았어요.

미주/ (피식 웃는다)

성진/ 오케스트라에... 합류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미주/ 저야 좋은 일이죠.

그러자 성진이 들고 온 악보를 건네준다. 받아 드는 미주.

성진/ 그럼 다 되었네요. (고개를 끄덕이다 미주를 보며) 가볼게요. 사과 받아줘서 고마워요.

미주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성진을 바라본다. 성진도 마주 본다.

성진/ 사실은 나도 슈베르트를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같아요. 미주씨랑.

미주/ 네.

성진/ 연습날 봐요.

성진이 먼저 계단을 투둑 내려간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미주.

(FADE OUT)

11. 오케스트라 연습실

온갖 악기의 소음속에 성진의 옆얼굴이 텐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 지휘봉이 보면대를 톡 치자 오케스트라가 집중한다. 성진 특유의 스타트로 음악이 시작된다. 먼저 관악기들의 파트가 시작되고 뒤이어 현 파트의 공세가 시작된다. 첼로 자리에 미주가 앉아 열심히 연주하고 있다. 좀 더 치고 나와 달라는 성진의 애끓는 손짓이 현 파트를 향한다.

12. 단장실

악장/ 일단 악기가 너무 중저가품이라... 같이 음색이 섞이면 티가 확 나는거 아시죠, 단장님.

혜연/ (담배를 붙여 물고)

악장/ 연습은 제법 해왔는데 그래도 많이 서툴죠. 진짜 수연씨가 너무 필요한 연습이었어요.

우리 오케스트라의 절대요소구나, 수연씨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다소 집중을 못했어요, 저는.

멍하니 악장을 바라보는 성진, 혜연은 담배를 피우면 악장의 말에 미세하게 동의하고 있다.

악장/ 역시 수연씨를 기다렸어야 해요. 지휘자님이, 아니 우리가 너무 경솔했던 거 같아요.

혜연/ 자기는 어땠어, 오늘 연습?

성진/ 첫날이니까...

혜연/ 그래도 예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냐. 느낌이랄까.

성진/ 굉장히 노력파랄까, 연습시간에 비해서 완성도가 예상밖이었고요, 태도도 좋습니다.

혜연/ 그럼 뭐, 지휘자로서 별 불만은 없는거네? 됐네, 뭐, 그럼.

악장/ (혜연의 눈치를 핏금) 에이, 그래도 지휘자님도 수연씨에 비해서는 아니겠조.

땀방으로서는 만족한다, 그런 뜻이겠조, 그쵸?

혜연/ 본인은 만족한다는데 왜 악장님이 그러세요? 노력파에 태도도 좋다고 만족한다잖아요?

안 와도 되겠네, 미친년.

꽤한, 어색한 공기. 혜연의 연기가 허공으로 퍼진다.

13. 주차장

자신의 차로 걸어오던 성진, 미주를 발견하고 멈춰선다. 어딘가 다급하게 전화하고 있던 미주가 성진에게 목례를 보낸다. 그리곤 돌아서서 통화하는 미주. 얼핏 들리는 내용은 미주의 고물 꼬마차의 고장에 관한 이야기다. 자신의 차 문을 잡았던 손을 놓고 미주에게 다가가는 성진. 돌아보는 미주의 얼굴. 왜 다가오는지 의아한 눈빛이다.

14. 성진의 차

성진이 운전하고 미주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 뒤를 흘깃 돌아보는 미주. 뒷좌석에 첼로 케이스가 널널하게 놓여있다.

미주/ 첼로가 너무 작아 보여요. 내 차 뒤에서는 엄청 커보이는데.

성진/ 그럼 미주씨도 그 차에서는 엄청 커보이겠네요.

미주/ 그건, 좀 별로네요.

성진/ (미소지으며) 남산 쪽으로 넘어갈까요? 시간은 비슷한 거 같은 데.

미주/ 좋아요.

미주가 창에 얼굴을 바짝 다가서 밖을 보고 있다.

성진/ 저기, 미주씨.

미주/ (성진을 보며) 네?

성진/ 술 사줘요.

미주/ 술요?

성진/ 내가 취직시켜 줬잖아요. 갚아야죠. 술 사줘요. 거기다 오늘 차도 태워 주니까.

미주/ (은은히 얼굴에 미소가 돌며) 보기보다 엄청 치사한 분이시네요?

성진/ 치사한 게 아니고 갚을 건 갚아야죠.

미주/ 무슨 술을 사야 하는데요?

성진/ 소주에 돼지갈비 사줘요.

미주/ 아직 월급 한번도 안 받았는데... 도요?

성진/ 그럼 오늘은 일단 내가 널테니까 월급 나오면 입금해줘요.

미주/ 철저하네요.

15. 돼지갈비집

불판망에 올려지는 돼지갈비. 미주가 굽고 있다. 술잔을 들고 물끄러미 보고 있는 성진.

미주/ 근데 나도 고기 굽는 거 좋아하는데.

성진/ 여자들끼리 먹을 땐 주로 미주씨가 굽는구나?

미주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성진/ 기다려 봐요. 나만의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정도 익은 고기를 다시 원그릇에 옮겨 양념을 더 묻혀서 불판에 올리는 성진.

성진/ 바로 이 성의예요. 조금 귀찮지만 더 맛있게 먹고자하는 성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꼭 내가 구워요.

미주/ 맛에 예민한가봐요?

성진/ 아뇨. 말하자면... 정성에 예민해요.

미소지으며 미주를 바라보는 성진.

성진/ 오늘 첫 연주, 좋았어요. 정성들인 연습이 느껴졌어요.

미주/ 고마워요. 칭찬들으니까 좋으네요, 아직도 애같이.

둘이 건배를 한다. 미주는 원샷을 하고 성진은 반샷을 했다. 자기 잔을 채우고 병을 든 채 성진에게 잔을 비우라는 사인을 보내는 미주. 이럴 때 미주는 꼭 소년 같다. 괜히 놀라는 시늉을 하며 잔을 비우는 성진. 다시 잔이 찬 두 사람이 이번엔 동시에 원샷을 한다.

(점프)

소주병이 여섯 개 넘게 비어 있다. 고기는 바싹 타버린 두어 조각만 불길도 없는 불판에 놓여있다. 잔 속에 담긴 소주를 보고 있는 미주.

미주/ 나, 수연이 동창인데, 나한테 수연이 얘기 한마디도 안 묻네요?

성진/ (꽤 취한) 아, 물어 봤어야 했나? 수연인 어떤 학생이었어요?

수연인 남자친구 있었나요? 수연인... 수연인...

미주/ 둘이 요즘 문제 있다는 얘기 단원들한테 들었어요. 싸운거예요?

성진/ 그 얘기 안해도 되죠? 나 안하고 싶은데...

미주가 성진을 바라보다가 그냥 잔을 내민다. 또 원샷하는 두 사람.

16. 거리

비가 엄청 온다. 우산을 든 갈비집 주인 할머니 양 옆에 바짝 붙어서 주차한 차로 가는 성진과 미주.

17. 성진의 차안

조수석에 앉은 미주, 차창에 쏟아지는 비를 보고 있다. 뒷좌석에는 첼로와 불편한 합석을 하고 있는 성진. 미주, 눈길을 돌리지 않고 말한다.

미주/ 내가 뒤에 앉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내가 더 작고 날씬한데.

성진/ 그건 아니죠. 이제 대리기사가 오면 미주씨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그때 앞으로 가서 앉을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미주/ (웃으며) 그 소리만 지금 다섯 번째 하는 하는 거예요.

성진/ 그런가...

미주/ 진짜 취했나봐요.

그리고는 비를 보며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두 사람. 비가 더 거세져서 바깥이 하나도 안 보인다.

성진/ 미주씨.

미주/ 네?

성진/ 우리집 갈래요?

미주/ ...

성진/ 우리집 가서 한잔 더 할래요?

빛소리를 들으면서 거절의 말을 기다리는 성진. 창 밖을 보다가 대답하는 미주.

미주/ 네. 그래요. 우리, 한 잔 더해요.

18. 연습실

휴식시간이 시작되었다. 단원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미주는 양손을 깎지끼고는 스트레칭을 한다. 땀을 닦으며 미주를 보는 성진. 가늘고 길지만 파워 있어 보이는 미주의 손가락.

19. 저택 외관

빛속에 서 있는 저택. 투박한 콘크리트 구조에 옛날식 정원이다.

20. 저택, 거실

와인잔을 긴 손가락을 잡고 마시는 미주. 역시 칠십년대풍의 레트로한 실내에 황토색 고급 가죽 소파, 구십도로 앉은 두 사람. 성진도 마시고는 미주의 얼굴을 본다. 쭉스러워하는 미주.

미주/ 사실은 제가, 와인 맛을 전혀 몰라요. 좋은 와인일텐데...

성진/ 사실은 나도 전혀 몰라요..

미주/ 괜히 저한테 안 맞추셔도 돼요. 잘 아시면서.

성진/ 진짜 몰라요. 나도 그냥 마시는 거예요.

미주/ 그럼 모르는 사람끼리 건배해요. 무식하게.

잔을 칭하고 원샷하는 두 사람. 서로 무식하다고 비웃는다. 킬킬대다가 다시 채운 서로의 잔만 내려다보는 두 사람. 문득 성진이 손을 뻗어 미주의 손을 잡는다. 약간 빠려다 가만히 있는 미주.

미주/ (작은 소리로) 권력 남용이에요. 난 약자라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구요.

성진/ 옆으로 가서 앉으면, 고소할 거예요?

미주, 성진을 보다가 고개를 젖는다. 미주의 옆으로 가는 성진, 뭔가 하려다 템포를 잃고 건배로 대신 한다. 다시 원샷하는 두 사람. 또 무식하다고 서로 놀린다. 그러다 성진이 키스한다. 미주가 밀쳐낸다.

미주/ 이건 고소감이죠.

성진/ 나 무식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키스한다. 미주는 서툰다. 머리를 이상한 각도로 하고 있어서 성진이 애를 먹는다. 떨어지는 두 사람. 어색하게 성진이 준비한 안주, 모짜렐라와 토마토 썰은 것에 올리브오일 뿌린 것을 먹는다.

미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수연이가 나 왔어, 이제 기분도 좀 풀렸어,

이러면서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성진/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쳐다보는거지.

미주/ 순발력이 그리 없어서야. 나 지금 니 동창한테 너에 대해 묻고 있었어,

빨리와. 이러면 되잖아요.

성진/ 그게 무슨 개소리에요. 그런 말을 누가 믿어요.

미주/ (웃으며) 나도 무식하잖아요.

또 킁킁대고 웃는 두 사람. 그러다 다시 키스한다. 이번엔 미주가 좀 발전했다.

21. 연습실

손의 스트레칭을 마친 미주가 이번엔 팔을 하늘로 든다. 그러자 짧고 좀 험렁한 윗도리가 들리면서 허리가 드러난다.

22. 저택, 안방

안방 화장실에서 세면대 물소리가 가끔씩 들려온다. 침대 끝머리에 앉아 침대를 비추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있는 성진. 머리를 뒤로 쓸어 넘겨 본다. 그때 화장실에서 미주가 나온다. 세수를 한 듯 머리칼이 좀 젖어 있다.

미주/ 와, 완전히 취했어요. 난 역시 와인이 쥐약이야. 빙빙 돌아요, 세수를 했는데도.

화장실에서 나온 미주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는다.

미주/ 우앙, 비맛고 술취하고, 엉망진창이네.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만지는 미주의 뒤로 성진이 일어서 다가온다. 움추러드는 미주.

성진이 미주의 목에 키스한다. 미주의 약점은 목이다. 성진의 손이 미주의 짧은 상의 공간을 파고들며 허리를 껴안는다. 뒤에서 키스하며 미주의 가느다란 허리를 쓰다듬는 성진. 그러다가 한 손은 윗도리 속으로, 다른 손은 바지 속으로 들어간다. 쾌감에 몸을 어쩔 줄 모르면서도 이성을 찾으려 애쓰는 미주.

미주/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성진/ 이 방이 뭔데, 아무 방도 아냐. 그냥 방이야.

미주/ 그래도, 나중에 수연이 어떻게 봐요, 이 방은 안 돼요.

성진은 되려 미주의 옷을 벗긴다. 미주는 흰색의 크로즈와 심플한 브라를 하고 있다. 의외로 육감적인 몸매다. 겹옷이 벗겨진 미주가 돌아서서 성진에게 몸을 맡긴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3. 연습실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미주. 첼로를 성진처럼 껴안고 있다.

24. 저택, 안방

성진을 첼로처럼 껴안고 어쩔줄 모르고 있는 미주. 성진이 움직일 때마다 성진의 등을 다급하게 두드린다. 격투기의 항복 선언 같기도 하고 더 하라는 재촉 같기도 하다. 두 사람의 섹스가 거울에 고스란히 비춰 더 자극적이다. 높이 들어 올린 미주의 발끝이 발레리나처럼 활처럼 오그라 들어있다.

빗소리가 계속 들린다.

(점프)

거울에 비친 비어있는 침대. 온통 구겨진 시트들이 창에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널부러져 있다.

25. 저택, 정원

대문 바로 앞에서 첼로를 어깨에 멘 미주가 휴대폰을 보고 있다. 성진은 어색하게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다. 미주의 폰이 울린다.

미주/ 아, 네. 지금 나갈게요.

미주가 아무일도 없는 사람처럼 성진에게 웃어보이고 대문을 열고 간다.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대문을 잠시 보고 있는 성진.

26. 연습장

장엄한 총주가 몰아치고 있다. 미주 쪽을 보지 않으려 애쓰는 성진.
연주가 끝나고 수정할 부분을 말하지만 미주만 성진을 보지 않고 벌써 갈 준비를 하고 있다.

27. 단장실

커피가 성진 앞으로 밀어져 놓인다.

혜연/ 진짜 야생 르와이냐. 브라질 사는 동창이 돈 좀 썼다면서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향 좀 맡아봐?

성진/ (시키는대로 한다)

혜연/ 이런 거 본 적있어?

혜연이 건네주는 것을 받아보니 투명한 아크릴 입방체 안에 작은 덩어리 같은 것이 굳어져 있다.

혜연/ 그게 사향고양이가 커피콩을 먹고 똥 똥이래. 신기하지?

성진/ 그러네요.

혜연/ 뭐든지 포장하기 나름이야, 그치? 세상은.

똥도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비싸게 파니까 그럴싸 해보이잖아?

성진/ (묘하다)

혜연/ 실제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지. 보는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포장을 잘해야 되는거지. 사람도 포장이야.

자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모금하는 혜연. 성진도 한모금 마신다.

혜연/ 근데 자기는 수연이 문제를 크게 걱정 안하는 느낌이야?

성진/ 네? 아, 그런 말씀을, 제가 왜 걱정이 안되겠어요...

혜연/ 그치? 걱정되는데 단원들 눈도 있고 그래서 티를 안 내는거지?

성진/ 그런 점도 당연히 신경쓰이죠.

혜연/ 근데 나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

처음으로 성진이 혜연을 바라본다. 항상 가식적인 미소가 덧발려 있던 혜연의 표정이 창백해 보인다.

혜연/ 결혼하려니까 기집애가 또 변덕이 나서 그러나보다 했는데... 뭔가 이상해.

제일 이상한게 뭔지 알아?

성진/ (의아해 바라보고)

혜연/ 카드를 안 써. 수연이는 내가 죽어도 그 다음날 카드를 쓸 애거든.

하긴 자기도 알잖아. 수연이. 근데 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 그게 너무 이상해.

성진/ 화가 난 걸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현금만 쓰고...

혜연/ 그럴겠지? 아후, 조금씩 걱정이 돼. 이렇게 심지가 굳은 애가 아닌데 말야.

동시에 커피를 마시는 두 사람.

혜연/ 이러고 있는데 쑥 들어오면 좋겠다. 아, 몰라, 나 왔어. 그러면서.

성진, 고개를 끄덕여 동의한다.

28. 복도

걸어가던 성진, 문득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연다.

김미주 단원에게 아침 9:40에 보낸 성진의 문자.

‘택시로 가서 좀 그렇네요.’ 답은 없다. 지금은 오후 5:45 인데도.

휴대폰을 집어넣으려는데 멍하고 알림이 온다. 얼른 본다. 미주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죠.

나머지는 다 내 잘못이에요. 술 많이 마신 거, 집에 간 거, 특히 안방에 들어 간 거.

다시는 잘못하지 않기 위해 지휘자님 문자는 답 안할게요. 이해하시죠?’

텅 빈 복도에서 문자를 보고 있는 성진의 외로운 모습

29. 사채업 사무실

사채업 사무실임을 알 수 있는 환경. 성진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 입구 쪽에는 경리 책상이 있고 오십대 여자가 성진을 보자마자 마스크를 쓴다. 저 안쪽에 육중한 회장님 책상이 있고 그 옆에는 로코코풍의 소파 세트가 있다.

소파에는 최고급 이탈리아 의상을 입은 육십대 남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 성진을 보고 얼른 끈다. 그리고는 성진을 향해 반갑게 손인사를 한다. 맞은 편에 앉은 성진. 경리가 다가와 성진의 체운을 채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간다.

성진부/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성진/ 지나가다 들렀어요.

성진부/ 어, 점심시간이네 벌써?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성진/ 그냥... 별 생각은 없는데...

성진부/ 짜장면 시켜 먹을까 그럼?

성진/ (고개를 끄덕이고)

성진부/ 미스김, 우리 짜장 둘 시켜주고 나가서 점심 먹고 와.

그리고는 다시 환한 얼굴로 성진의 이모저모를 살피는 성진부.

(점프)

짜장면을 비비는 두 사람.

성진/ 아버지.

성진부/ 응?

성진/ 나, 결혼 못할 거 같아.

성진부/ 왜?

성진/ 수연이가... 나갔어, 집을.

성진부가 잠시 멍칫하다가 짜장을 후르륵 먹는다.

성진부/ 나 때문인 거 같다. 상견례때 나보고 생각이 바뀐 모양이네.

성진/ 아, 왜 그런 말을 해요.

성진부/ 아냐, 맞아. 가난한 건 감춰도 무식한 건 결국 티가 나거든.

성진/ ...

성진부/ 입고 나간 옷도 좀 그랬고.

성진/ 그게 아냐, 아빠. 수연이도 느낀거지 머.

성진부/ 뭘?

성진/ 내가 누구를 완전히 못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시늉을 하는 거지,

완전히 좋아 하는 거... 그게 잘 안돼.

갑자기 성진부가 사나운 표정이 된다.

성진부/ 야!

성진/ (쳐다보고)

성진부/ 나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안 사랑해?

울컥 하는 성진. 짜장으로 눈을 내린다.

성진/ 사랑하지.

성진부/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니가 왜 누구를 못 좋아해? 그런 소리 하질 말어.

성진/ 알았어, 아빠.

성진부/ 야, 그리고 아버지라 그래. 지휘자가 아빠가 뭘냐.

그리곤 짜장을 먹으며 왼손을 내미는 성진부. 성진이 왼손으로 마주 잡는다. 그리곤 금

방 풀고 모르는 척 한다.

성진부/ 야, 정 다 괴로우면 때려쳐. 막말로 아빠 일 이어 받아도 먹고 살아.

야 이 일이 지휘자랑 되게 비슷하다. 각 파트가 생각이 다 달라요. 다 갖고 싶지 않지.

우린 받아야 하고. 그걸 조율하는게 내가 하는 일이야. 너 일이랑 되게 비슷하지?

성진/ 그러네.

성진부/ 니가 다 나 닮은 거야. 지휘 잘하는 거. 사채업이랑 지휘랑 진짜 비슷하다니까?

손 잡을 때 까지가 딱 좋았다.

30. 저택, 욕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천정을 쳐다보고 있는 성진. 그러다 문득 욕조 안의 물이 가끔씩 파문이 인다는 것을 느낀다. 약간은 집중해서 물을 보는 성진. 정말 파문이 인다. 이번엔 청력을 곤두세워 집중하는 성진.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파이프가 통 하고 울린 것도 같다. 좀더 집중하는 성진.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안난다. 다시 깊숙이 물에 몸을 담그는 성진.

31. 저택, 거실

-노트북의 수연을 노려보고 있는 성진. 끝나자 처음부터 다시 튼다.

-피아노에 앉아 건반을 보고 있는 성진. 그러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의 주제부분만 오른손으로 쳐본다. 두어번 반복한다. 그러다가 문득 휴대폰을 든다. 미주에게 전화를 건다. 한참만에야 미주가 받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휴대폰 너머로는 누군가를 레슨하는 듯 서툰 첼로소리와 아이들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온다. 휴대폰을 보면대에 올려 두고 즉흥곡 3을 정식으로 연주하는 성진.

32. 미주의 학원

미주의 옆얼굴. 귀에 에어팟이 끼워져 있다. 레슨받는 아이가 열심히 연주하고 있지만 미주의 귀에는 성진의 음악소리만이 들린다.

33. 미주의 학원앞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있는 미주. 성진의 음악이 계속 들려온다.

34. 저택, 현관

현관 밖에 서 있는 성진. 미주가 열어준 대문에서 걸어오고 있다. 성진이 다가온 미주를 껴안는다. 미주는 안기기만 하고 손은 축 쳐져 있다. 음악이 계속 된다.

35. 저택, 안방

섹스하는 두 사람.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점프)

이불 속에서 아직도 숨이 오르내리는 성진의 가슴에 엮드려 있는 미주. 오르내리는 가슴을 보다가 손가락으로 가슴에 뭐라고 쓴다. 성진은 애무라고 받아들인다. 미주가 계속 쓴다.

성진/ 가슴에 뭐 쓰는거야?

미주/ 그냥.

성진/ 가르쳐줘.

미주/ 미친년.

성진/ ...

미주/ 저번은 그렇다쳐도, 실수 할 수 있다고 쳐도, 오늘은 할 말이 없네. 미친년이지 뭐.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창인데, 동창의 안방에서,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두 번씩이나 와서, 미친년... 미친년...

미주를 보던 성진, 문득 미주의 귀에 속삭인다.

성진/ 미친년.

미주/ 하지 마요.

성진/ 미친년.

미주가 성진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톹친다. 그런데 달아오르는 눈치다. 성진의 손이 움직이자 벌어지는 미주의 다리가 이불속에서 느껴진다.

미주/ 그럼 나도 할거야, 미친놈. 지휘자님, 미친놈. 미친놈.

성진이 계속 미친년이라면서 만지니까 미주도 허리가 뒤로 휘어지며 탄성을 지른다. 성진이 미주의 몸 위로 올라가 미주의 풍성한 머리채를 휘어쥐며 귀에 대고 미친년이라고 속삭인다. 미주가 도리어 더 해달라고 한다. 성진이 움직이며 계속 속삭인다. 미주가 금방 절정에 오르며 비명을 지른다.

(점프)

침대에 엎드려 있는 성진. 욕실에서는 미주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때 갑자기 비명이 들려온다. 후다닥 일어나 욕실쪽으로 가는 성진.

36. 저택, 욕실

머리칼이 젖은 미주가 성진을 돌아본다. 가슴을 두 팔을 모아 가리고 있다. 샤워기에서 는 물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성진/ 왜 그래?

미주/ 갑자기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근데 괜찮아요.

성진/ 진짜? 덴거 아냐? 온수가 왜 그러지?

미주/ 진짜 괜찮아요. 내가 건드렸나봐. 하나도 안 데었어요. 나가 있어요.

성진을 밖으로 밀치며 웃는 미주. 그런데 도리어 뭔가 미안해 하는 듯한 어색하고 기괴한 미소다.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같은, 그래서 얼버무리려 드는 것 같은 징그러운 미소다. 그 얼굴에서 화면이 순간 암전 된다.

37. 자막 <3개월 전>

38. 공항

공항 소음이 먼저 선행 한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입국 게이트를 나오는 수연, 취향 좋은 옷차림이다. 뒤이어 산더미 같은 트렁크 더미를 끌고 나오는 성진. 수연이 통화하면 멈춰서자 성진도 멈춰 선다. 수연이 통화를 끊으며 성진을 보며 웃는다.

수연/ 우리 단장님은 급한 일 있어서 못 나오시고 기사 아저씨만 보냈네.

우리가 주차장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성진/ 그러지 뭐.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입국장 안을 둘러보는 수연.

수연/ 우앙, 한국냄새... 난 그래도 작년에 나왔었는데 성진씨는 삼년만인가?

성진/ 벌써 그렇게 됐나?

수연/ 아이고 아저씨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해야 겠다. 짐이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성진/ 아냐, 괜찮아.

수연/ (벌써 통화를 시작하며) 성진씨 우리 아케리카노 따뜻한 거 한잔 마시자.

냄새 맡으니까 땡긴다. 아저씨, 아저씨? 저예요.

성진이 캐리어를 놓고 돌아서 커피숍 쪽으로 향한다. 수연은 통화를 하며 나무 벤치에 앉는다. 카메라, 옆으로 조금 이동하면 곁에 앉아 있는 미주가 잡힌다. 정면만 보고 커피를 조금씩 마시고 있는 미주. 통화를 마치고 미주를 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하는 수연.

수연/ 와... 공항에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네.

미주/ 그냥 심심해서, 열쇠도 줄 겸.

수연/ 열쇠는 나중에 만나서 줘도 되는 거잖아.

그래도 열쇠를 건네는 미주. 받아서 얼른 백에 넣는 수연.

미주/ 인테리어 말이야, 한다고 했는데 니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다.

수연/ 공사 중에 계속 영상 봤잖아. 그걸 보고 내가 오케이 하면서 진행했고.

당연히 내 취향에 맞지. 불필요한 소리 뭐하러 해?

미주/ 그러네.

수연/ 내 취향에 안맞는 건 이렇게 공항에 나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좀 그렇지 않아?

미주/ 그것도 그러네.

수연/ 고마운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치?

미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화면 밖에서 성진이 오나보다 커피를 받아들며 밝게 일어서는 수연. 화면 귀퉁이를 가렸던 트렁크 카트가 사라지고 미주 혼자 화면에 남는다. 커피를 한모금 마시는 미주.

39. 저택, 정원, 부감

정원 안으로 들어오는 수연과 트렁크를 든 성진과 기사 아저씨. 수연의 신나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40. 저택, 거실

내부를 둘러보는 성진. 배경으로 팁을 주려는 수연과 안 받으려는 기사아저씨. 다가오는 수연, 뒤에서 다가와 백허그를 하는 수연. 성진이 손을 뒤로 돌려 수연의 엉덩이를 만진다.

수연/ 맘에 들어?

성진/ 영상보다 훨씬 멋지네. 이런 집이 서울에 있었구나.

수연/ 학생때 레슨 받으러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은 뭐 이런 흥가에 사시나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생각 나는거야. 좋지? 얼마든지 큰 소리 내며 연습해도 되고, 그리고 성진씨 정원도 좋아하잖아.

성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내 취향이야.

성진의 등에 기대 있는 수연의 얼굴.

수연/ 다행이다. 근데 우리 할 일 엄청 많아. 상견례도 해야 하고 집들이도 해야 하고.

성진/ 그래야지. 그나저나 자기 친구가 엄청 애썼네.

이거 리노베이션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었을텐데.

수연/ 갠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수고비로 정확히 챙겨줬고.

성진/ 집들이때 초대해. 감사인사하게.

수연/ 개가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워낙 바쁜 애라.

41. 수연의 학원

장한나 흥내를 내며 너무 과도한 감정액션으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학생. 물끄러미 보고 있는 미주.

미주/ 은비야.

은비/ 네?

미주/ 이리 줘봐.

은비의 첼로를 받아 드는 미주. 활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미주/ 첼로는 담담한 악기야. 그래서 사람과 제일 닮았다고 하는 거야.

니 감정을 첼로만 알게 전달하는 거야. 첼로가 속으로 아, 애 지금 괴롭구나, 혹은 아 애 지금 기쁘구나,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첼로가 알아서 하는거야. 들어봐.

미주가 담담히 은비가 연주하던 곡을 해본다. 들어보니, 미주는 슬프다. 첼로도 안다.

42. 저택, 거실

-콧수염을 기른 뚱뚱한 남자가 또 한 명의 남자를 부른다. 이미 세 명의 남자가 맥주잔을 들고 웃으며 서 있다. 마다하던 남자가 합류하자 콧수염이 키움을 낸다. 그리고는 눈신호에 맞춰 사중창이 시작된다. 독일어로 된 성악곡이다. 손님들은 각자 음식접시와 맥주잔을 들고 먹으며 즉흥적으로 꾸며진 손님들의 무대를 즐긴다.

-거실에 있는 피아노, 식탁, 정원에 있는 불명용 모닥불 등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손님들. 즉흥 연주에 화음들도 넣고 깔깔대고 독일어와 한국어가 이리 저리 나오는 것으로 보아 유학시절 친구들과 한국 학교 동창들이 뒤섞인 파티이다.

-수연과 수연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성진. 웃고는 있지만 어색한 태도다.

친구1/ 와 진짜 둘이 잘 어울려요. 완전 샘나.

친구2/ 그니까. 수연이 어떻게 꼬셨어요? 쉽지 않은데?

수연/ 내가 꼬셨어.

친구들이 웃으며, 그러나 어색하게 수연을 바라본다.

친구1/ 니가?

수연/ 응, 내가 완전 들이댔지.

친구2/ 와, 우리는 성진씨 완전히 기술 좋다 어떻게 꼬셨지 궁금했는데...

수연/ 내가 꼬셨어.

성진이 웃음기 없이 술을 마시자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술잔이 부족한지 잔을 씻고 있는 성진. 그때 혜연이 식탁에 앉아 담배를 붙여 문다. 흘깃 보고 의례적 미소를 보내고는 다시 그릇을 씻는 성진.

혜연/ 아후, 다리야. 자기야, 나 여기서 한 대 펴도 되지?

성진/ 그럼요.

혜연/ 참, 아버님은 만나고나서 별말씀 없으셔?

성진/ 좋아하시죠 뭐. 좋은 집안에 장가가서 좋으시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연기를 길게 뿜는 혜연.

혜연/ 근데 나 상견례하고 나서 자길 다시 봤어.

성진/ 네?

혜연/ 자기 진짜 훌륭한 사람이더라. 진짜 의지가 굳고, 자기 중심이 뚜렷하고,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지더라구.

성진/ (몸을 돌리며) 잘 이해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혜연/ 그냥 그렇게 느꼈다구. 진짜 옛날말로 자수성가 했더라.

그러더니 접시에 담배를 부벼끄며 일어서더니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다.

혜연/ 자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

혜연이 버리고 간 궤초를 쓰레기 통에 버리고 접시를 씻는 성진. 사중창단은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43. 저택, 정원

사그라들고 있는 장작불 앞에 성진이 머리에 깎지를 끼고 밤하늘을 보고 있다. 실내에서는 술에 잔뜩 취한 악장이 바이얼린을 켜고 있다. 사람들이 예의상 환호해주고 있고. 그때 성진에게 맥주병을 건네며 곁에 앉는 성진의 친구.

성진/ (받아들며) 어, 나 많이 마셨는데...

성진친구/ 마셔. 명령이야.

성진친구도 밤하늘을 본다.

성진친구/ 야, 부럽다.

성진/ 그러냐?

성진친구/ 부지휘자 자리도 경쟁이 살벌한데 바로 상임이라니...

성진/ 잘할라나 나도 걱정이다.

성진친구/ 야 솔직히 클래식세계가 잘하고 못하고가 어딤냐. 강 자리차고 앉으면 끝이지.

쫓도 누가 음악을 아냐? 니네 장모님같은 귀족 애호가나 아시는거지.

성진/ (표정이 굳으며) 취한거야?

성진친구/ 부러워서 그런다, 부러워서. 난 너무 사랑으로 결혼했나봐.

결혼은 비지니스인데 나만 로맨스소설쓰고 자빠졌던거지. 결혼은 비즈니스야.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아, 시바.

성진/ ...

성진친구/ 너 그거 아냐? 넌 항상 그래. 되게 충동적으로 사는 거 같은데 항상 최선의 길을 선택해. 제일 좋고, 밝고 넓은 길. 그것도 재주지. 하, 배워야 되는데.

성진이 뭐라 하려다 맥주를 자리에 놓고 일어서 간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늘을 보며 분함을 삭이고 있는 성진친구.

44. 저택, 안방

샤워를 먼저한 수연이 화장대에 앉아 나이트크림을 바르고 있고 욕실에서 샤워를 마친 성진이 허리에 큰 타월을 두르고 젖은 머리로 나온다. 수연 옆에 서서 로션을 바르는 성진.

수연/ 그래도 알차고 성대하게 잘 끝났어, 그치?

성진/ 응 그래.

성진의 표정이 어딘가 어둡다. 눈치를 보는 수연.

수연/ 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네? 그치?

성진/ 왜 그렇게 생각해?

수연/ 그래 보이니까.

성진/ ...

수연/ 혹시 아까 애들이 한 말이 걸려서 그래?

성진/ 무슨 말?

수연/ 내가 꼬셨다니까 의외라 그런 말. 혹시 애들이 비꼬느라, 그러니까 당연히 성진씨가 접근했을거라는 뉘앙스로,,,

성진/ 전혀 그런 생각 안했어.

성진이 정색을 하고 거울을 통해 수연을 본다.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는 수연.

성진/ 난, 좀 더 있다 잘게. 좀 취해서. 먼저 자.

잠깐 멈칫하다가 수연의 머리칼에 입 맞추고 나가는 성진. 수연의 표정이 복잡하다.

45. 저택, 정원

남은 불씨에 나무를 더 넣고 입바람을 부는 성진. 불길의 자그맣게 피어오른다. 취했다는 건 거짓말인 듯, 맥주를 한모금 마시고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46. 미주의 학원

마지막 점검을 하고 불을 끄는 미주.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린다.

47. 연습장

객석 정중앙에 혼자 앉아 있는 혜연. 초집중하며 지휘하고 있는 성진을 보고 있다. 성진은 그리 크지 않은 목소리로 연습 사이사이 자신의 의사를 단원들과 교환하고 있다. 가끔은 어떤 유머도 있는지 단원들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단원중에 있는 수연도 자랑스러운 표정이고 혜연도 만족한다.

(쉬는 시간)

혜연과 수연이 나란히 앉아 있다.

수연/ 어때 점점 잘하지?

혜연/ 이제 많이 여유 있어 진 거 같네.

수연/ 아이구, 칭찬을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하십시다, 단장님.

혜연/ 됐고, 이것 좀 봐봐라. 기획팀에서 올라 온건데, 너랑 결정해야지

오프닝은 3번 교향곡으로 세게 나가고, 그니까 텐션을 확 올리고,
그 다음은 좀 서정적으로 가는거야. 이게 이번에 빈에서 한 공연 프로그램인데,
레퍼런스로 괜찮은 거 같애.

혜연이 내미는 기획서를 받아 들던 수연, 문득 무대 위를 본다. 성진이 까만 긴머리에
날씬한 몸을 가진 바이얼린과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다. 바이얼린이 손을 내밀자 유심히
들여다보는 성진. 수연이 시선을 회피하며 기획서 쪽으로 집중한다.

48. 성진의 차안

어딘지 냉랭한 차안, 성진은 운전을 하고 수연은 차밖을 보고 있다.

수연/ 베를린... 가고 싶다.

성진/ 거기선 맨날 한국 가고 싶다고 한 거 같은데?

수연/ 그래도 베를린으로... 돌아가고 싶다.

성진/ ...

수연/ 성진씨는 서울이 좋지?

성진/ ...

수연/ 서울에 와서 성진씨, 참 활기 차 보여.

(갑자기 성진을 보며) 참 아까 그 바이얼린이랑 무슨 얘기한거야?

성진/ 바이얼린?

수연/ 무대 위에서, 둘이 엄청 재밌는 얘기 하는 거 같던데?

성진/ 바이얼린? 그랬나?

수연/ 바이얼린 손을 내미니까 엄청 자상하게 들여다도 보고.

성진/ 아, 손톱이 약해서 걱정이라고, 자꾸 깨진다 그러면서.

수연/ 응...

다시 냉랭한 공기.

수연/ 성진씨는 참 다정한 사람인 거 같아. 서울에 와서야 알았네.

난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진/ 나도 뭐 하나 얘기 좀 할까?

수연/ 뭔데?

성진/ 꼭 그렇게 단원들 다 보는데서 둘이서 레파토리회의를 하셔야 했나?

지휘자는 아무 관여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게끔 해야 되는걸까?

수연/ 아, 그건, 엄마가 일차로 나랑 상의하고 성진씨랑 결정하려고 한거야.

성진/ 그러니까 그 일차 상의를 꼭 그렇게 다 보는데서 해야 되는거였나?

뭔가 말하려다 관두고 창밖을 보는 수연. 성진이 거칠게 커브를 돈다.

49. 몽타쥬

- 집에서 말다툼을 이어가는 성진과 수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 티비를 보고 있는 수연. 성진은 밖에서 불명을 때리고 있다.
- 단장실에서 성진은 뭔가 화나 있고 혜연과 수연이 설득하고 있다.
-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 성진. 수연이 물끄러미 등을 보고 있다.
- 성진의 지휘자방을 불쑥 연 수연, 검은 머리 바이얼린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성진을 보고 문을 쾅 닫는다. 문 앞에서 잠시 성진이 나오나 기다리는 수연. 나오지 않자 복도를 또각또각 걸어간다.

50. 저택, 안방

쿵하는 소리에 눈을 뜨는 수연, 잠시후 성진의 차가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나더니 멀어진다. 침대에 잠시 그대로 눈을 뜬 채 누워 있는 수연. 어디선가 새소리가 요란하다.

(점프)

샤워를 한 듯 젖은 머리를 타월로 감싸고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침대를 비추는 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는 수연. 어딘지 우울함에 생기를 잃은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는 수연. 그러다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뚫어져라본다.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 부분을 노크하는 수연. 잠시 멈췄다가 다시 노크한다. 천천히 팔을 내리는 수연.

51. 슈즈 매장

잘 재단된 양복을 입은 매니저가 혜연의 발에 직접 힐은 신겨 주고 있다. 몸을 이리 저리 틀어 힐의 자세를 보는 혜연.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수연의 표정은 딴 생각에 심드렁하다.

혜연/ 한 사이즈 살짝 큰 거 같지 않아요?

매니저/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니저가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혜연.

혜연/ 너 요새 문제 많지?

수연/ 나? 글썄... 강강...

혜연/ 엄마는 보면 알아. 이래봐도 이혼을 두 번이나 한 사람 아니냐.

수연/ 그 자랑 좀 하지마. 아이구 진짜.

간이 소파에 앉아 힐을 벗으며,

혜연/ 넌 니 아빠를 닮았어. 소유욕이 엄청 강하지. 난 상대도 안돼.

그 성진이도 니 손에 짝 안 들어오는 거 같으니까 엄청 화나지?

수연/ (고개를 끄덕인다)

혜연/ 개도 보통사람 아냐. 개네 아빠 봤지? 하이고, 집안 참.

그러니까 개도 진짜 진창에서 헤엄쳐 나온 독종인거야. 자존심도 엄청 강하고.

수연/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쩔땐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혜연/ 그니까,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나.

그냥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성공의 발판 같은 거.

수연/ 설마...

혜연/ 솔직히 단원들도 다 뒤에서 그렇게들 수근 대니까. 아, 사이즈 있었네.

매니저가 가져오는 힐에 금방 정신이 팔리는 혜연.

52. 저택, 안방

거울 안에 자기를 보고 있는 수연.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 안에 자기 모습을 노크한다.

허공에 손을 멈췄다가 다시 노크한다. 무언가 생각에 빠진 수연.

53. 지방 국도

미주의 차가 한적한 도로가에 서 있다. 차에 기대 풍경을 보고 있는 미주. 그때 미주의 휴대폰이 울린다. 액정에 'SHE'라고 뜬다.

미주/ 여보세요?

수연/ 나야.

미주/ 응.

수연/ 모해?

미주/ 차가 퍼져서 서비스 기다리고 있어. 워낙 꼬여서 맨날 이래.

수연/ 우리, 볼까?

54. 화원 겸 커피샵

꽃을 가득한 공간. 꽃을 사려는 사람과 고르는 사람들 사이를 카메라가 빠져나가면 정원에 마련된 테이블에 커피를 놓고 마주 앉은 미주와 수연이 보인다. 미주는 수연을 물끄러미 보고 있고 수연은 커피잔을 조금씩 돌리고 있다.

수연/ 저번에 공항에서, 내가 너무 심했어. 사과하려고.

미주/ 뭐, 그럴 수 있지.

수연/ 그때 약간 당황했나봐.

미주/ 나도 예고 없이 나간거니까, 내 잘못도 있지.

뒤로 등을 기대 앉으며 그제야 미주를 보는 수연.

수연/ 역시 넌 쿨해. 쿨한 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미주/ ...

수연/ 성진씨는... 미치겠어... 노상 꿈해 가지고...

서로 좋은 시간보다 신경전하는 시간이 더 많아.

미주/ 내가 그런 하소연까지 들어 줘야 하니?

수연/ 그렇지. 그럼 본론만 얘기할게. 창고있잖아...

미주/ 응.

수연/ 수리하면서... 창고 들어가 본 적 있어?

미주/ 응.

수연/ 그럼 열쇠, 니가 가지고 있겠네?

수연과 미주가 서로를 쳐다보며 정지한것처럼 미동도 않는다.

55. 저택, 안방

문이 열리더니 수연이 들어와 방 밖을 보고 서 있다. 잠시 차이를 두고 미주가 들어온다. 방안을 둘러보는 미주.

미주/ 이렇게 꾸몄구나... 아늑하네...

수연/ 이쪽이었지?

미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 벽을 채우고 있는 책장 쪽으로 다가간다. 그리고는 힘주어 책장을 밀자. 책장이 밀리면서 그 뒤에 육중한 철문이 나온다. 긴장한 듯 수연이 침을 삼킨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철문을 여는 미주. 의외로 철문이 부드럽게, 그러나 묵직하게 열린다. 미주가 열어준 문으로 천천히 어두운 공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수연.

56. 밀실

콘크리트 만으로 된 공간. 벽면에는 벽체와 붙은 콘크리트 침대가 있고 그 위에는 양고라 담요가 한 장 곱게 접혀 있다. 옛날식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선반 위에는 종이박스 두 어개. 그리고 집안으로 이어지는 굵은 파이프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

집안의 거실과 욕실, 안방을 볼 수 있는 두터운 삼중 유리창이 있다. 집안에서 봤던 거울들이 이쪽과 통해 있었다. 실내를 둘러보는 수연.

수연/ 와, 옛날이랑 똑같네.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네.

그러다 문득 카메라쪽을 보며, 수연,

수연/ 미주야, 너 왜 거기 서 있어?

카메라 돌아가면 교복을 미주가 서 있다. 겁먹은 표정의 미주.

미주/ 난, 좀 무서워, 여기.

수연/ 봉신, 무가 무섭냐? 지가 찾아놓고... 그리고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이리와.

미주가 수연에게 다가온다. 미주의 손을 잡는 수연, 수연도 교복 차림이다.

수연/ 이제 여긴 우리 아지트야. 우리 둘이만 놀수 있는 공간이야.

내가 턱으로 신호를 주면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기다려, 알았지?

미주/ 내가 니 부하냐?

수연/ 부하가 아니고 노예지. 너 나 좋아하지?

미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수연/ 좋아하면 노예거야. 알았지? (미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럼 눈감아. 충성을 맹세해야지.

미주가 눈을 감자 수연의 얼굴이 다가간다. 순간 화면이 과다노출된다.

(점프)

성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녹화하고 있는 수연, 미주는 화면 밖으로 빠져 있다. 슬픈 표정을 연출하는 수연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미주.

(점프)

커다란 수퍼봉지에 레토르트 식료품과 생수를 담아 방으로 들어오는 미주. 수연은 여행용 트렁크에 짐을 싸고 있다. 침대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미주.

미주/ 얼마나 있을건데?

수연/ 몰라, 길면 일주일? 상황봐서.

미주/ 이 정도 가지고 되려나?

수연/ 여차피 다이어트도 할 참이었어. 검사검사 아주 타이밍 좋아.

트렁크를 잠그고 짧은 밍크 퍼 자켓을 걸치는 수연, 미주도 일어선다.

수연/ 나 그럼 들어간다? 성진씨 지금 집으로 오는 중이래.

미주/ 응.

수연/ 문 잘 잠그고 가고, 나 열쇠 줘.

미주가 열쇠를 건넨다. 트렁크를 끌고 밀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쿵 닫는 수연.

57. 밀실

트렁크를 벽에 밀어 넣고 봉지에서 생수를 꺼내 한모금 마시는 수연. 미주가 거울에 가까이 붙어 서 있다. 물을 마시면서 미주를 바라보는 수연. 미주가 머뭇하면서 손을 흔든다. 안 보이는지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마주 흔드는 수연. 미주가 사라진다.

(점프)

소변을 보는 수연, 물을 내리자 녹물이 쏟아진다. 얼굴을 찌푸리는 수연. 세면대에서도 처음엔 녹물이 나오더니 점차 맑은 물이 나온다.

(점프)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수연, 실내는 전혀 와이파이며 신호가 안 잡힌다. 이리저리 허공에 휴대폰을 옮겨보는데 성진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흠칫 긴장하는 수연. 스피커를 통해서 바깥소리가 그대로, 좀 더 확대되어 들린다. 창에 붙어서 성진을 자세히 보는 수연.

열려진 창문과 어지럽혀진 침대 위, 급하게 떠난 듯한 실내에서 황망하게 서 있는 성진. 노트북 화면에 부어 있는 메모지를 보고 컴퓨터를 켜다. 수연의 메시지를 보는 성진. 성진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려고 창 끝으로 가서 옆쪽으로 보는 수연.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헝크르는 성진을 보며 고소하다는 듯 미소를 짓는 수연. 메시지가 끝나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방을 나가버리는 성진을 보며 킁하고 웃는 수연.

(점프)

잠에서 깨는 수연. 공간이 추운 듯 입고 잔 밍크를 오무린다. 봉지에서 에너지바를 하나 찾아 먹는다. 그러다 침대 바로 옆 벽 낮은 쪽에 쇠사슬로 연결된 족쇄가 하나 있는 것을 본다. 족쇄에는 작은 열쇠도 그대로 꽂혀 있다. 족쇄를 열쇠로 잠궜다고 열어보던 수연, 자신의 발목에 채워본다. 약간 흑인 노예 흉내를 내보다 이내 싫증이 나는지 풀고 다시 침대에 앉는다.

그때 방으로 성진이 들어온다. 술에 꽤 취한 성진, 약간 비틀거리며 침대 끝에 앉는다. 그리곤 웅크리고 있는 성진, 안쓰럽게 바라보는 수연, 그때 성진이 울기 시작한다. 놀라는 수연, 수연의 눈에도 금방 눈물이 차오른다. 성진의 흐느낌이 꽤 길어진다. 마음을 다 잡고 나갈 준비를 하는 수연, 머리 매무새를 다듬고 밍크는 벗어 두고 열쇠를 찾아 문에 꽂는다. 그런데 잘 열리지 않는다. 조금 신경써서 해보는 수연, 그런데 전혀 안 열린다. 몇 번을 해봐도 마찬가지다. 짜증의 한숨을 쉬며 성진을 바라보는 수연. 성진은 울음을

멈추고 침대에 누워 천정을 보고 있다.

수연, 약간 자존심이 상하지만 성진을 부른다. 처음엔 중간 정도의 목소리로, 그러다 저
멈 커져 유리를 두드리며 고함을 지른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성진. 성진은 누워서 휴대
폰을 보고 있다. 유튜브 같은 것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다.

nba 하이라이트다.

뭔가 강하게 두드릴 것을 찾아 실내를 둘러보는 수연.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트렁크조
차 몇부리느라 가족으로 된 터라 화장품 병밖에는 없다. 화장품 병을 쥐고 유리를 두드
리는 수연. 점차 패닉에 빠진다. 그러다 병이 깨지며 손을 베는 수연. 피 흐르는 손을 움
켜쥌다. 수연은 그제야 확실히 깨닫는다.

간헐다.

(점프)

다시 열쇠를 시도해 보는 수연. 베인 손에는 에르메스 스카프가 감겨 있다. 그러다 문득
어두워진다. 성진이 자려고 불을 껐다. 밀실은 천정에 달린 구식 작은 전등만이 어둑하
게 비친다. 수연이 미친 듯이 성진을 부르며 고함을 지른다. 얼굴이 공포에 질려 흥측하
게 일그러져 있다.

(FADE OUT)

58. 밀실

목욕하고 있는 성진을 보며 손가락 소세지를 먹고 있는 수연. 성진은 욕조 속에 몸을 담
그고 있다. 그러다 문득 먹기를 멈추고 밀실 내부에 있는 파이프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수연. 황급히 파이프로 가 주먹으로 내려친다. 성진에게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 조
금 더 세게 연속으로 치는 수연, 너무 손이 아파 감싸 쥌다. 그래도 성진은 전혀 모른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준비를 한 수연, 파이프를 격렬하게 내려친다. 고통에 신음소리를 내
며 어쩔 줄을 모르는 수연.

그런데 문득 성진이 욕조에 인 파문을 의식한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성진. 갑자기 찾
아온 희망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수연.

수연/ 그래, 성진씨! 나야! 내가 그런 거야! 나 여기 있어!

성진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는 수연, 그러나 성진은 다시 몸을 뒤로 기대며 얼굴을 물로
비빈다. 욕조의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수연, 그러다 다시 일격을, 이번에 발로 가한
다. 고통스럽게 발을 부여잡으며 성진을 바라보는 수연. 그러나 하필이면 그 순간에 성
진이 물에서 일어선다. 고통과 좌절에 흐느끼는 수연.

(점프)

잠에서 깨어나는 수연. 이제 밍크는 개털같이 부스스하다. 멍하니 앉아 있는 수연.

그래도 이를 닦는다. 수돗물에 입을 행구고 잠시 흐르는 물을 보다가 마시기 시작한다.

그러다 화장실에 불이 켜짐을 느낀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있음도 느낀다. 천천히 돌아서는 수연. 화장실에 미주가 서서 웃으며 거울을 보고 있다. 세면대에는 물이 틀어져 있다. 경악해서 얼어붙는 수연.

수연/ 너... 뭐야?

손을 흔드는 미주.

미주/ 놀러 왔어. 잘 지내고 있니?

짐승처럼 유리쪽으로 다가가 미주와 마주서는 수연. 아수라의 표정이다. 미주는 취기가 올라서 발그레해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웃는다.

미주/ 성진씨가 술먹어서 그래. 와인 못먹는다 그래도 자꾸만 먹어.

(그러다 웃으며) 나, 따먹고 싶어서 그러나봐.

수연/ 너가 감히 우리집에 와?

미주/ 내가 열쇠를 하나 더 만들었어. 너 골탕 먹이려고. 화 많이 나고 많이 놀랐지?

이제 꺼내줄까?

황급히 파이프쪽으로 가서 통통 부은 손을 내리친다. 세면대에 고인 물을 내려다보는 미주. 고개를 들더니 미소 짓는다.

미주/ 꺼내주면, 나 용서 할거야?

또 내리친다.

미주/ 그럼 용서 못할 짓을 저질러야 겠다.

세면대의 물로 세수를 하더니 욕실을 나가 안방으로 가는 미주. 수연이 경악해 그 움직임을 따르며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는 #22의 정사 장면이 이쪽 각도, 수연의 시선으로 펼쳐진다. 저쪽은 환하고 이쪽은 어두워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다. 그들의 소리는 더 자세하고, 동작은 #22보다 더 노골적이다.

수연은 처음만 소리를 질렀을 뿐 눈물을 흘리며 바라본다. 그러나 소리는 괴로운지, 귀를 두 손으로 세계 막고 있다. 둘의 정사가 절정을 향하자 수연이 침대로 돌아와 이불로 머리를 감싸며 웅크린다. 밑실 안에는 성진과 미주의 숨소리로 가득하다.

59. 자막 7개월 전

60. 럭셔리 요양원

잘 다듬어진 정원 오솔길을 미주가 박선생의 휠체어를 밀면서 오는 원경. 그 위로.

박선생/ 난 니들이 그 집이라면 이를 갈줄 알았는데,

미주/ 왜요, 선생님?

박선생/ 니들이 그 집에서 레슨 받을 때 내가 좀 들들 볶았니?

미주/ 그 덕에 다 첼로로 먹고 살잖아요.

정원 벤치에 멈추는 휠체어, 미주도 벤치에 앉는다.

박선생/ 난 수연이가 그 집 써주면 좋지, 뭐. 난 여기가 편해.

그 집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 같아.

미주/ ...

박선생/ 그 집이 방공호 같아도 은근 우리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겐 편한 구석이 있지.

미주/ 저도 그 집 좋아해요.

가느다란 눈웃음을 웃으며 미주를 바라보는 박선생.

박선생/ 근데 리노베이션이란게 보통일이 아닌데 니가 할 수 있겠어?

미주/ 제가 하나요, 뭐, 다 사람들 시키는거죠.

박선생/ 그래도. 수연이는 참 좋은 친구를 가졌다.

미주가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는다. 고개를 돌리며 먼 곳을 보는 박선생.

박선생/ 밀실은 어떻게 할거니?

당황하는 미주. 말문을 잇고 박선생을 바라본다. 천천히 고개돌리는 박선생, 눈웃음이 더 커졌다.

박선생/ 내가 모르는 줄 알았냐? 선생을 우습게 보는구만.

나, 니들 둘이 거기 들어가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미주/ 죄송해요...

박선생/ 죄송할 게 뭐 있어. 그래도 그땐 그냥 어린애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이젠 같이 살 집도 구하고, 하하.

미주/ (부끄러워 말문을 돌린다) 근데 그 공간은 뭐예요? 맨날 궁금했어요.

약간 망설이던 박선생.

박선생/ 우리 선친이 의사였잖아, 근데 일제때 그 왜 나쁜 부대 있잖아.

거기 의무관이셨어. 그러니, 아무래도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셨겠지.

전쟁이 끝났는데, 항상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 거 같다는 망상에 벌벌 떠셨지.

그래서 그 집도 짓고 그런 공간도 만드셨지.
병원에서 퇴근하시면 노상 그 안에 계셨었어.
그 안에서 밖을 보며 엄마와 나를 감시하는 게 취미셨지.

미주/ (고개를 끄덕인다)

박선생/ 이상한 순간도 있었지. 한 날은 들어오라는 거야. 밀실로. 들어갔지.
그랬더니 족쇄 같은 거에 나를 묶는거야. 그러더니 한참을 내려다보시는데
그 눈이 어찌나 무섭던지. 거기있는 그 족쇄 알지?

미주/ 네? 족...쇄요? 아뇨?

61. 미주의 플래쉬백

족쇄에 발을 묶인 채 주저앉아 위를 보고 있는 미주. 반바지와 얇은 티셔츠 차림이다.
비슷한 옷차림의 수연이 열쇠를 들고 미주를 내려다보고 있다.

미주/ 그만 풀어줘... 무서워... 니 눈 지금...

수연/ 내가 무서워? 내가 해칠 거 같아?

미주/ (고개를 끄덕인다)

수연/ 맞았어.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칠거야.

열쇠를 멀리 던져 버리는 수연. 금속성의 소리가 밀실에 퍼진다. 미주에게 키스하는 수연, 약간 멈춰있다가 반응하는 미주. 수연의 손이 미주의 티셔츠 속으로 들어간다. 키티 문양이 있는 브라가 드러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수연의 손.

미주/ (속삭이듯) 진짜 말 안들으면 해칠거야?

수연/ 엄청나게 벌을 줄거야.

미주/ 나, 말 잘 들을거야.

발이 묶인 채 침대 위에서 뒤엎키는 두 사람.

62. 저택, 몽타쥬

- 디자이너와 상의하는 미주
- 도면을 찍어 수연에게 전송하는 미주.
- 공사 현장을 꼼꼼히 챙기는 미주.
- 영상을 찍는 미주, 마지막에는 자기 멘트를 담아 수연에게 전송하는 미주.
- 거의 현재 모습으로 완성된 저택, 흐뭇하게 돌아보는 미주.

63. 고속도로, 미주의 차 안

운전하고 있는 미주. 네비로 켜 놓은 휴대폰에 수연의 영상 통화 요청이 있다. 반가운 표정으로 누르는 미주. 수연이 나온다. 잠시 말없이 서로 웃는 두 사람. 수연은 걷고 있다. 배경은 공원이다.

미주/ 산책하는 거야?

수연/ 응, 운전중이네?

미주/ 응, 지방에 결혼식 있어서 알바 뛰고 오는거지. 라라라라라라(엘가의 사랑의 인사)

킁킁대고 웃는 두 사람.

미주/ 왜일이야, 산책을 다하시고?

수연/ (꼬다리가 말린 담배?를 보여주며) 이거 한 대 피울려고. 히히.

수연이 담배에 불을 붙인다. 맛나게 피우는 수연을 흘깃거리며 운전을 하는 미주.

미주/ 서울 올라니까 심란하지?

수연/ 그런 것도 있고,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미주/ ...뭔데?

수연/ 나 서울 들어갈 때... 누구랑... 같이 들어가.

미주/ 누구랑?

수연/ 남자.

미주/ (놀랍지만 어색한 미소로 감추며) 남자?

수연/ 응, 결혼할 남자. 여기서 만났어. 같이 들어갈거야.

그리곤 연기를 뿜는 수연. 미주는 잠시 말문을 잇는다.

미주/ 와...

수연/ 맞아. 와....지.

미주/ 와... 그럼... 나는?

수연/ 그러게.

미주/ 와... 그러게...

수연/ 넌... 계속 내 가장 친구지... 변하는건 없어. 그저 내가 결혼 하는거지.

차를 갓길에 대는 미주. 화면속의 수연을 마주본다.

미주/ 그럼... 결혼 후에도 계속 나 만나는거야? 예전처럼?

수연/ (픽 웃으며) 바보야, 전과 같지는 않지. 그냥 친구로 만나는거지.

나 결혼한다구, 남자랑 사는거야, 이제. 진짜 삶을 사는거지. 남들이 인정하는.

미주의 눈에 약간 눈물이 고인다. 억지로 미소 짓는 미주.

미주/ 진짜... 삶...

수연/ 진짜 삶이지. 이제부터.

미주/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수리 끝날 때 까지 말 안 한거네? 난 이용만 당한 거네?

수연/ 내가 너 그 소리 할 줄 알았다. 야, 뭘 해주려면 진심으로 그냥 베풀어 줘.

니가 나한테 그것 좀 해주면 안 되냐?

고개를 끄덕이는 미주,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미주/ 이제부터 진짜 삶이면, 난 니 가짜 삶이었어?

수연/ 야, 나 해롱하니까 솔직히 말할게. 그래도 되지?

야, 솔직히 넌 내가 어디가 예민한지,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 아는 내, 딜도야.

난 니 딜도고. 서로 그건 알고 있었잖아. 추억대지 말자 우리.

미주가 화상 통화를 황급히 끈다. 미주가 석고같은 얼굴로 길을 보고 있다.

64. 밀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를 막고 있던 수연. 물소리에 이불 밖으로 벗어 난다. 미주가 욕실에서 욕조에 물을 받으며 거울을 보고 웃고 있다.

미주/ 너랑 할때랑 비슷하니, 아님 다르니?

수연/ ...

미주/ 세면대에 물 받았으니 대답해봐. 아마 이제 먹을 건 다 떨어졌겠지?

구석에 나 뒹구는 빈 봉지를 보는 수연. 망설이다가 파이프를 한번 내려친다. 파문을 보며 흡족해 하는 미주.

미주/ 나 남자랑 오랜만에 해보는데... 느꼈어. 이건 또 이거대로 괜찮네. 허허

너도 느꼈었니? 저 남자랑 할 때?

다른 창으로 안방의 성진을 보는 수연, 성진은 엎드려 잠든 듯 하다. 파이프를 두 번 내려친다.

미주/ 못 느꼈어? 잘 하던데.... 하긴 넌 변태니까.

(조금 웃으며) 넌 남자의 밑에서 다리를 벌리고 고분고분 쾌감을 느끼는 타입이 아니지.

니가 지배하고, 괴롭히고, 횡포를 부려야 쾌감을 느끼는 타입이지, 맞지?

파이프를 한 번 두드리는 수연.

미주/ 그런데 왜 그랬어. 그런 너의 충실한 노예인 나를 왜 버린거야.

난 니가 나를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낄 때 표정, 너무 좋아. 그럴 때 너는 진짜 아름다워.

그런 너의 노예인게 너무 자극적이고 행복해. 이렇게 충실하고 행복한데, 왜 버린거야.

왜 그렇게 완벽한 관계를 파괴한거야... 고작 남자 때문에... 진짜 덜도는 남자잖아.

수연/ ...

미주/ 이제 니가 왜 벌을 받는건지 이해가 가니?

파이프를 두드리는 수연.

미주/ 넌 내가 널 꺼내줄거라고 믿니?

뭐라고 해야 좋을지 잔머리를 굴리는 수연, 고민하다 한번 내려친다. 미주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진다. 그리고는 세면대의 물을 버리고 욕조에 몸을 담근다.

미주/ (작은 소리로) 고민해 볼게, 넌 어차피 다이어트 해야 하잖아.

남편한테 예쁘게 보이려면. 진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진짜 삶.

65. 저택, 욕실

물을 손으로 떠서 머리를 뒤를 적서 넘기는 미주. 혼잣말처럼 나즈막히 말한다.

미주/ 멍청한 년. 복에 겨워서. 내가 얼마나 맛있는 줄도 모르고.

(FADE OUT)

66. 밀실

-선반 위의 박스를 내리려고 애쓰는 수연. 점프를 몇 번 뛰어 박스 하나를 떨어트린다. 바닥에 쏟아지는 박스. 박선생 선친의 사진과 물건들이다. 하등 도움이 안된다. 다시 나머지 박스에 도전하는 수연. 조금 더 깊숙이 있는 터라 겨우 떨어트린다. 박스가 부서지며 열리고, 골동품 라면이 쏟아진다.

-참담한 수연의 표정. 열려진 봉지에 곰팡이가 슬은 라면이 보인다.

-수도를 틀어 라면을 씻고 있는 수연.

-라면을 망설이다가 입에 넣는 수연. 조금 입에 넣는 수연. 씹어 본다. 점점 들어가는 양과 속도가 증가한다. 가끔씩 반찬으로 수프도 먹는다. 밍크 퍼는 냅킨 겹 수건 겹 이불이 된지 오래다.

-라면을 먹으며 박서생 부친의 사진을 보는 수연. 끔직한 사진과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두서 없이 섞여 있다. 스피커에서는 성진이 치고 있는 즉흥곡이 울리고 있다.

-멍하니 보고 있는 수연의 얼굴 위로 성진과 미주가 내는 신음소리가 덮힌다. 성진이 욕도 하고 그럴 때마다 미주는 더 크게 신음을 지른다.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워 있는 수연. 그때 미주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미주/ 수연아.

후다닥 일어나 앉는 수연. 미주가 멍하니 거울을 보고 있다. 가까이 다가가 미주의 얼굴을 가까이 보는 수연.

미주/ 아직 거기 있지?

수연이 열린 파이프를 친다. 파문을 보고는 얼굴을 드는 미주.

미주/ 먹을 거도 없이 용케 잘 버티네. 하긴 너는 항상 유능하지. 난 대체로 무능하고.

썩쓸하게 웃는 미주. 수연은 아부겸 파이프를 두 번 친다.

미주/ 아냐, 난 무능한 거 맞아. 항상 요 모양 요 꼴이지. 처지에 맞지도 않는 악기나 하고. 모든 게 너한테 떨어져. 그래서 너의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나봐.

수연이 한 번 세계 내려친다. 웬지 열어줄 것 같은 분위기다.

미주/ 그래서 너한테 한 이 행동도 너무 후회돼.

이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중 생각을 못한거지 뭐.
너 나오면 나, 경찰에 넘길거지?

수연이 연속 두 번치기를 정신없이 한다.

수연/ 미주야 아냐! 내가 먼저 잘못했잖아! 전혀 문제 안 삼을게! 열어줘 제발!!

미주/ 그래도 할 말없지. 근데 말야 수연아.

마주보는 두 사람, 일순 정적이 흐른다.

미주/ 니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았어. 진짜 삶이란 말.

그 진짜가 진짜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지, 그치?

수연/ (의도를 파악하려 미주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미주/ 이해했어. 그리고, 나도 그 삶이 필요한 거 같기도 해.

수연/ 무슨 소리 하는거야...

미주/ 저 사람... 내가 가지고... 그 진짜 삶이란 거... 내가 살게... 미안해 수연아.
넌 거기 그냥 있어야 할 거 같아.

미주가 슬픈 얼굴로 수연을 바라본다. 수연이 소리도 못내고, 규칙도 없이 파이프를 계속 친다. 수연의 손에서 피가 흐른다. 미주는 돌아서더니 샤워기를 틀고 물을 맞으며 서 있다. 미치듯 몸부림치던 수연이 문득 파이프 위쪽에 달려 있는 밸브를 찾아 점프를 뛴다. 두 세 번에 시도 끝에 밸브에 메달리는 수연, 힘들게 밸브를 잠근다. 순간 변하는 온수에 비명을 지르는 미주. 성진이 놀라 욕실로 뛰어들고 미주가 얼버무리며 성진을 데리고 나간다. 밸브에서 내려오는 수연, 얼굴이 절박함에 무섭게 변해 있다. 올려다보는 수연, 파이프마다 밸브가 달려 있다

67. 저택, 거실

썩크대를 열고 배수반을 점검하는 기술자를 보고 있는 성진. 기술자가 일어서 성진에게 다가오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기술자/ 어젯밤에 갑자기 냉수가 끊기더니 오늘은 온수도 끊긴거예요?

성진/ 네. 밤에는 온수는 나왔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술자/ 바깥에 원 수도관에서부터 점검했거든요? 아무 이상 없는데...

집안 어딘가에서관이 막히거나 잠긴거 같은데... 뭐 잠그거나 하신 일은 없죠?

성진/ 전혀요.

기술자/ 그럼, 일이 큰데요. 오래된 집이라 시공도도 없고.

성진/ 어떡해야 하죠?

기술자/ 파이프따라 집을 다 뜯어야죠.

그게 아니면 원 수도관을 죽이고 새로 수도관을 이어서 연결해야죠.

그것도 일이 크지만 그래도 그게 낫죠.

근데 이 집, 무슨 방공호도 아니고 벽체가 이리 엄청 두꺼워요?

성진/ 원 수도관을 죽인다...

68. 밀실

듣고 있던 수연이 황망히 자신의 세면대와 변기를 본다.

69. 저택, 거실

성진/ 그 방법 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언제부터 그럼 공사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기술자/ 오늘 당장,

그때 싱크대와 안방 화장실에서 열어두었던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진다. 놀라서 서로 바라보는 기술자와 성진. 겁먹은 기술자가 황급히 자신의 짐을 챙긴다.

기술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아 시팔, 놀랬네. 물이 갑자기 나오네. 아, 찢찢해, 시발...

성진이 싱크대 물을 끄고 안방 화장실 물도 끄고 나오자 벌써 기술자는 사라졌다. 집 안을 여기저기 바라보는 성진. 이상한 느낌과 분위기.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는 성진.

70. 단장실

커피를 마시며 서진을 바라보는 혜연. 성진 앞에는 커피가 없다.

혜연/ (약간은 두려운 목소리로) 너무 이상하잖아. 출입국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 안 간거고, 카드 사용도 전혀 없고,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고,
나한테 연락 한번이 없고 말이야.

성진/ ...

혜연/ 난 개 엄마잖아. 난 수연이를 알아. 이건 수연이가 아니야. 뭔가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깜짝같이 잠수탈 수 있는 성격이 아냐, 개가.
맞잖아, 자기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성진/ 네.

혜연/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자기야, 내일 집으로 경찰이 갈거야.

성진/ 저희... 집으로요?

혜연/ 불쾌하게 생각하지마. 의심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체크하는 거래.

성진/ 저, 의심하십니까? 약간이라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성진을 노려보는 혜연.

혜연/ 약간은.

71. 연습실

지휘자 단에 올라오는 성진. 근데 자격지심인지 뭔가 자신에 대한 집중이 형편없는 느낌이다. 그리고 뭔가 자신을 의심스레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미주만이 걱정스럽게 자신과 단원들을 번갈아 보며 한편인 느낌이다.

성진/ 자, 이제 공연이 코 앞입니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었죠?
우리, 연습의 마지막 일본 일본을 실전처럼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단원들은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다. 당황해서 말이 엉키는 성진. 그런 성진을 걱정스럽게 바라 보는 미주.

72. 저택, 거실

마당의 바닥을 세심히 훑어보고 있는 형사1, 그 모습을 성진은 형사2와 나란히 서서 보고 있다.

성진/ 진짜... 내가 수연을 죽여서 파묻었다고 의심해서 이러는 겁니까?
형사2/ 너무 예민해 하지 마시고, 요즘 정원 있는 집이 드무니까, 한번 보는거죠.
성진/ 그래도, 참, 할 말이 없네요.
형사2/ 이해하세요. 그리고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진/ 뭐가... 그렇죠?
형사2/ 결혼할 여자가 떠났다, 그것까진 그럴 수 있다 쳐요, 아무런 생존 흔적이 없는데, 전혀 걱정을 안 하시는 느낌이니까. 다들 약간은 의심할 수도 있죠.
성진/ 다들이라면 누구니까, 그 다들이.
형사2/ 단장님도 그렇고, 단원들도 그렇고...
성진/ 그렇군요. 내가 전혀 걱정을 안한다고 느끼는군요. 다들.

73. 밀실

미친 듯이 손과 발로 파이프를 두드리며 소리지르는 수연. 고속으로 거칠게 찍어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수연의 광란이 느껴진다.

74. 저택, 거실

형사2/ 그 흔한 친구들한테 한번 알아보지도 않으시니까.
성진/ (미간을 찌푸리며) 수연이는 저한테 자기 친구 소개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가 없어요.
형사2/ 김... 미주씨랑은 자주 만나시는 거 같은데?

불쾌해서 형사2를 바라보는 성진, 형사2는 실실 웃는다. 그때 정원의 형사1이 팔로 X포시를 한다.

형사2/ 이상 없대네요. 암튼 실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훑 보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세요?

성진/ 왜요?

형사2/ 크고 좋긴 한데, 뭐랄까 음습하달까? 그리고 이상하게 우웅하는 진동도 있는 거 같고.

성진/ ...

형사2/ 우리는 안 좋은 일 일어나는 집만 다니니까, 거의 반 풍수죠, 뭐. 히히.

75. 밀실

고통에 오그라져 침대에 누워 있는 수연. 손과 발이 모두 통통 붓고 멍들어 피가 배어 나온다.

76. 강북의 복잡한 주택가, 식당

비가 오고 있다. 갈비를 굽고 있는 성진. 문이 열리더니 미주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 온다. 성진을 보고 웃는다. 손을 들어 보이는 성진.

(점프)

건배를 하는 두 사람. 미주는 어느새 발그레 취기가 오르는 얼굴을 감싼다.

미주/ 밖에서 만나는 거도 좋아요. 우리 전에도 비오는 날에 고기 구어 먹지 않았어요?

성진/ 맞아. 그 날 우리집에 갔지.

히죽이 웃으며 잔을 비우는 미주.

미주/ 그냥 쓰는 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거슬려요,

성진/ 뭐가?

미주/ 우리집.

성진/ 아, 알았어. 미안해.

미주/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웬일이예요? 갑자기?

성진/ 그냥 술이 마시고 싶었어. 미주랑. 마침 비도 오네.

미주/ 비오는 날 돼지갈비랑 소주는 최고죠.

성진/ (감자기) 단원들이 나 의심해?

미주/ 네?

성진/ 수연이 없어진 거에 내가 관련 있다고 의심해?

미주/ 아, 그거... 나야 잘 모르죠...

성진/ 왜?

미주/ 나도 같이 의심 받고 있으니까. 나한테 누가 말할 리가 없잖아요.

성진이 미주를 바라보다가 자기 잔을 훌쩍 비운다. 미주도 비운다. 성진이 양쪽 다 채운

다. 동시에 비우는 두 사람.

77. 거리

미주의 작은 우산안에 성진과 미주가 꼭 붙어 비를 피하며 비틀대고 걷는다. 한산해서 빨리 달리는 자동차들이 물을 튀길때마다 피하며 킁킁대는 두 사람. 우산에 작은 키티가 있다.

78. 미주의 다세대 입구

성진이 우산을 털고 들어가는 두 사람.

79. 미주의 집, 입구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더니 성진에게 들어가라고 몸을 비키는 미주. 성진이 잠시 멈춰 서서 미주를 바라보다가 들어간다. 닫히는 문,

80. 미주의 집

여자 독신자의 집. 작은 걸이에 빨래들이 걸려 있고, 대체로 제법 단정하다. 침대 머리맡에는 아이패드 거치대가 있어 누워서 아이패드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미주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더니 침대에 앉아 있는 성진에게 미소를 보내고 냉장고에서 맥주와 안주를 꺼낸다.

미주/ 더 마실수 있죠?

성진/ 응.

미주/ 오늘 우리 먹고 죽어요.

혼자 킁킁대는 미주. 성진은 물끄러미 보고만 있다.

성진/ 1117.

미주/ 네?

성진/ 1117, 입구 비번이 1117이네?

미주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지며 미소를 짓는다.

성진/ 수연이 생일이랑 같네. 번호가.

미주/ 그래요? 저번에 살던 사람이 해놓은 거 그냥 쓰는건데.

난 저런 거 바꾸는 거에 좀 약해요.

자, 이거 마시고 우리 가위바위보 해요.

성진/ 가위바위보?

미주/ 옷 벗기 가위바위보. 진 사람은 계속 벗고 마시기. 자신 있어요?

성진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인다.

(점프)

잠에서 깨는 성진. 미주는 반대쪽으로 누워 잠들어 있다. 일어나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꺼내는 성진. 잔에 물을 마신다.

미주/ 나도 한 잔 줄래요?

돌아보면 미주가 일어나 앉아 멍하니 밑을 보고 있다. 잔에 다시 물을 채워 미주에게 가져다 주는 성진. 성진이 내민 물잔과 미주의 옆얼굴이 한 프레임에 잡힌다. 멈칫하는 성진. 쳐다보는 미주.

미주/ 왜요?

성진/ 아냐. (물잔을 건네주고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하더니)

우리 말이야, 전에, 언젠가, 만난 적 있었나?

미주/ (픽 웃으며) 돼지갈비집에서 아까 술마셨잖아요.

미주는 농담으로 받지만 성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미주를 뚫어져라 본다.

미주/ 왜 그래요, 오늘 좀 이상해요, 성진씨.

성진/ 지금 좀 이상해서. 잔을 주는데 갑자기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 같아서.

미주, 마신 잔을 옆에 놓더니 성진을 끌어

당긴다. 성진을 눕히고 품 안으로 고양이처럼 파고드는 미주. 성진, 마주 껴안으면서도 뭔가 생각한다.

81. 도로

뭔가 골똘히 생각하며 운전 하고 있는 성진.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차를 갓길로 댄다. 휴대폰을 뽑아 들더니 미친 듯이 사진을 검색하는 성진. 그러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낸다. 성진이 뽑아 온 커피 캐리어를 건네자 수연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고 다가 오는데 성진이 스냅샷으로 찍었다. 그 사진을 유심히 보다가 떨리는 손길로 확대하는 성진. 수연의 뒤에 미주가 앉아 있다. 옆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며, 고요히 앉아 있다. 떨리는 한숨을 내쉬는 성진. 미주의 옆얼굴이 떠 있는 휴대폰을 다시 홀더에 끼우고 털썩 뒤로 앉는 성진. 미주의 옆얼굴을 노려본다.

82. 저택, 거실

정중앙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 성진. 처음엔 보통 소리로 ‘아’하고 소리친다. 그리고는 잠깐 허공을 노려보다가 점점 크게 소리치는 성진. 나중에는 고향에 가깝게 소리지른다. 마침내 지쳐 헐떡이는 성진.

83. 안방 욕실

샤워기 밑에 서 있는 성진. 그때 문득 물이 끊긴다. 젖은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샤워기를 보는 성진. 남은 물방울이 똑 하고 떨어진다. 천정과 주위를 돌아보는 성진. 그리고는 가만히 말한다.

성진/ 물, 다시 켜줘.

그러자 이삼초후 물이 다시 나온다.

성진/ 꺼줘.

물이 다시 꺼진다. 욕실에서 길을 잃은 성진.

84. 밀실과 성진의 안방 화장실, 교차

욕실 거울 앞에 세면대를 내려다보고 물끄러미 서 있는 성진. 그 바로 앞에 마주 서서 바라보는 수연. 이제 손이 너무 부어올라 파이프도 칠 수가 없다. 눈물 흘리는 수연. 그러다 파이프를 한번 세게 친다. 그리고는 고통에 신음을 지르며 손을 감싸 쥘다. 그때,

성진/ 너니?

놀라서 정지하는 수연. 성진이 계속 물을 보고 있다.

성진/ 수연이, 너니?

수연, 이젠 아픔도 못 느끼고 세게 친다. 입을 벌리고 한숨을 크게 쉬는 성진. 거울을 한번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인다.

성진/ 영혼이야? 수연아, 너 죽은거야?

물이 두 번 연달아 흔들린다. 다시 한숨을 쉬는 성진.

성진/ 이 집안에 있는거야? 너 갇힌거야?

수연, 세계 내려치고는 소리 지른다.

수연/ 맞아, 성진씨, 나 구해줘! 여기 갇혔어, 바로 성진씨 눈 앞에! 여기 있어!

성진/ 미주가... 그런거야?

물이 계속 파문이 인다. 수연이 미친 듯이 파이프를 친다. 그리고는 손이 아파 흐느낀다.

성진/ (허공을 돌아보며) 내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혹시 지금 나 보고 있니?

수연이 아무 생각 없이 물을 한 번 친다. 그러자 성진이 얼굴이 차가워진다. 자기 앞의 거울을 노려보다가 노크를 해본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본다. 침실에 있는 커다란 거울쪽으로 가는 성진, 수연도 따라가 그 앞에 마주 선다. 또 노크해 보는 성진. 그리고는 침대를 돌아본다.

성진/ 어디있는지 알겠다. 거기서 다 봤겠구나, 나. 다 보고 있었겠구나...

수연/ 봤지만 상관없어, 성진씨. 나 꺼내줘. 다 상관없어, 꺼내 주기만 해.

성진씨, 제발, 제발... 제발 살려줘.

성진/ 나 다 본거야? 다 봤겠네. 그러네...

수연씨/ 진짜 상관없어. 살려줘, 성진씨...

성진/ 여기로, 바로 이 뒤에서, 미주랑 나랑 그러는 거 얘기하는 거 다 듣고 보고 있었구나...

거울을 물끄러미 보는 성진, 수연이 아픈 손을 움켜쥐고 마주 서 있다.

성진/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연아?

거울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던 성진, 방을 나간다. 애원하며 흐느끼는 수연, 이제 희망을 잃고 바닥에 주저 앉는다.

85. 미주의 집, 주차장

다세대의 복잡한 주차장에 미주의 작은 차가 주차를 하고 있다. 벽과 문 사이 좁은 틈으로 내려 미리 꺼내 세워 두었던 첼로를 메고 들어가는 미주.

86. 미주의 집, 현관

1117을 누르고 들어가는 미주. 간이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성진을 보고 멍칫해다가 들어간다. 문이 닫히고 어디선가 예능 프로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복도.

87. 미주의 집

썩크대에서 포도를 씻고 있는 미주. 바로 앞에 앉아 앉아 있는 성진. 포도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고 마주 앉는 미주. 성진은 녀이 나가 멍하니 포도를 보고 있다. 포도를 먹는 미주. 씨를 절묘하게 발라 접시 귀퉁이에 놓는다. 다시 포도를 입에 넣는 미주.

미주/ 수연이가 잘 못한거예요.

성진/ ...

미주/ 날 이용만 해먹고, 모욕했어요.

성진/ 그렇다고 사람을 가둬?

미주/ 내가 가둔 거 아니예요. 지가 들어간거지. 그런데 뭐가 잘못된거고...

난 단지 꺼내 주지 않은 거 뿐이에요.

성진/ 그게 그거지.

미주/ 달라요. 가두는 건 범죄고, 꺼내주는건 호의의 영역이죠.

성진/ ...

미주/ 난 개한테 호의가 없어요.

계속 포도를 먹는 미주.

미주/ 수연이는, 나쁜 사람이에요.

성진/ 둘이 좋아했잖아. (미주가 바라보자) 서로 사랑한거잖아.

미주/ (픽 웃으며) 그건 성진씨 만나기전 이야기죠. 그냥 계집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성진/ 그래서 어떡할거야. 계속 저렇게 둘거야? 굶어 죽기라도 하면?

미주/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해요. 먹을 게 없을텐데...

포도를 먹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미주를 멍하니 바라보는 성진.

성진/ 미주씨, 이거, 살인이나 진배없어? 아니 살인이야?

미주/ 그럼 어떡해요. 이제와 꺼내주면서 '미안, 장난이었어' 이런다구?

그러면 수연이가 '아냐, 나도 잘못이 있는걸' 이러구 끝난다구?

성진/ ...

미주/ 수연이 성격 알잖아요. 나는 당연히고, 우리 둘 다 공범으로 몰아서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성진씨도 지금 나한테 온 거 아니예요? 그게 겁나서?

아니면 벌써 경찰이랑 공사하는 사람들 불러서 수연이를 꺼냈겠죠.

성진/ 그럼 어떡할거야. 저렇게 내버려 둔다고? 죽을 때까지?

수연/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성진씨도 알았으니 난 속이 편해요.

성진씨가 결정해요. 난 따를게요. 어떤 결정이라도.

말없이 포도접시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

미주/ 나, 약간 불안하니까, 안아줄래요?

성진/ ...싫어.

고개를 끄덕이는 미주.

88. 저택, 안방

침대 끝에 거울을 보고 누워 있는 성진.

성진/ 수연아, 거기 있냐? 거기 있지?

조용하다.

성진/ 나 어떡하냐. 내가 어떡해야 되냐? 넌 분명히 나 용서 안할텐데...

내가 어떡해야 되냐. 나 여기까지 되게 힘들게 왔는데...

너, 나오면 나 완전히 파괴시키겠지? 조각도 못찾도록 박살 내겠지?

(쓱싹 웃으며) 그게 한수연이지. 근데 너도 나 속였잖아. 여자 좋아하면서...

89. 밀실

라면 조각을 먹으면서 성진을 보고 있는 수연. 성진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성진/ 너랑 미주도 잘 어울렸을 거 같은데... 왜 그랬어.

90. 연습실

웅장한 총주. 성진이 오늘따라 광적으로 지휘한다. 그 에너지에 집중하는 단원들.

끝나자 다들 스스로와 지휘자에게 환호를 보낸다. 흐뭇한 표정으로 땀을 닦는 성진. 성진도 단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91. 단장실

배달되어온 초밥의 뚜껑을 열고 있는 혜연, 맞은편에는 약간은 상기된 성진이 앉아 있

다.

혜연/ 배달음식 딱 질색인 사람인데, 점점 나가기가 싫네. 나도 늙나봐.

성진/ 배달이 점점 발달하잖아요.

오도로를 간장에 찍어 입에 넣는 혜연. 오물오물 씹으며 성진을 바라본다.

혜연/ 오늘 좋았다고 다들 그러대? 만족스러운 표정이네?

성진/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생각하는 선을 향해 가는 느낌이라서요. 좋았습니다.

혜연/ 난 경험이 없지만 상상이 돼. 모든 악기와 연주자가 본인의 몸의 각부분 같을 거 같아.

한몸처럼 서로 호응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럴땐 미칠 거 같은 느낌이지?

성진/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 맛에 하는 거고요.

혜연/ 오늘이 그랬어?

성진/ (왜이러지?) 그, 그렇죠.

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광어 지느러미를 집어 입에 넣는다.

혜연/ 이제 손발이 좀 맞아 들어가는데... 고민이네.

성진/ 네?

혜연/ 수연이 말이야. 저는 싫다고 떠났는데 엄마는 그 사람을 계속 고용,

아니 기용하고 있으면 더 돌아오기 힘들겠다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거야? 정말 갑자기.

성진/

혜연/ 계속 수연이가 이렇게 떠나 있으면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 그치?

성진이 어두운 얼굴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혜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초밥을 먹을 때 오징어를 맨 나중에 먹어. 그래야 혹시 끝에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잖아. 오징어 제일 싼 재료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그치?

이번엔 성진이 딱딱히 굳어 초밥만 바라보고 있다가 일어선다. 성진이 나가자 물로 입을 소리내 행구는 혜연.

92. 지휘자실

물을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하던 성진. 얼음처럼 몸이 굳는다. 부재중 전화에 ‘수연’이 찍혀 있다. 남은 물을 벌컥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 성진. 문자도 와있다. 열어보면,

수연/ ... 나야.

뜨거운 것을 놓듯이 휴대폰을 책상위에 올려 놓고 얼어붙는 성진. 이마에 벌써 땀이 베

인다. 다시 전화를 들어 망설이다가 수연에게 전화를 거는 통화음이 가더니 전화를 받는다. 저쪽은 아무 소리도 소음도 없다.

성진/ 수연아. (대답이 없자) 수연아?

통화가 끊긴다. 다시 거는 성진. 이번엔 상대가 받지 않는다. 그대 노크소리가 난다. 놀라는 성진. 문이 뻐곰히 열리더니 긴생머리 바이얼린이 얼굴을 들이민다.

바이얼린/ 지휘자님, 모하세용?

성진/ 아, 지금, 뭐, 암튼 할 일이 있어요.

바이얼린/ (애교부리며) 잠깐만 시간 안되세요?

성진/ 할 일이 있다고! 나가라고! 한국말 못 알아들어?

성진의 고향에 놀라 문을 닫는 바이얼린.

93. 휴게실

내려진 드립커피를 따르는 미주. 한모금 마시고는 휴대폰을 본다. 그러더니 비틀하며 벽을 짚는다. 놀란 단원들이 다가와 부축한다.

단원1/ 김미주씨, 괜찮아요?

미주가 휴대폰을 꼭 쥐고 텅텅 떨고 있다.

단원2/ 어머, 이 땀 좀 봐. 괜찮아요, 진짜?

미주/ (일어서 추스르며) 괜찮아요. 잠시 현기증이... 이제 괜찮아요.

미주, 허둥지둥 떠난다. 비틀하면서 다 쏟은 커피잔을 여전히 쥔 채로. 그런 미주의 뒷통수에 대고 들으라는 듯이.

단원1/ 입덧하나?

단원2/ 으이그. 짹굿다, 진짜. 지휘자님 들으시면 혼나려규.

94. 복도

휘청대며 걸어오는 미주.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다.

95. 지휘자실

미주가 건네는 휴대폰을 받아드는 성진. 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수연/ 나 없는 동안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니?

다시 휴대폰을 건네주며 미주를 노려보는 성진.

성진/ 이거 또 니가 한 짓이지?

미주/ 그게 무슨...?

성진/ 니가 문 열어 준거지? 그리고 넌 용서 받고 나 괴롭히기로 둘이 짬거지?

미주/ 성진씨, 진짜, 아니에요.

성진/ (계속 노려보고)

미주/ 진짜 아니에요.

성진/ 그럼 가서 열어보자구!

미주/ (미주 특유의 일그러지는 미소) 열어본다구요? 어떡하려고요?

성진/ 무슨 소리야, 열어봐야지! 열어서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지!

미주/ 열었는데... 만약 없으면?

성진/ 그럼 우리 둘 다 바로 자수해야지.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

없다면 살아 있는 거니까 우리 둘 다 엄청난 죄는 아니잖아?

미주/ 성진씨는 그런데... 나는 큰 죄잡아요.

성진/ 그래도 살인보다는 낫지, 안그래?

미주/ (기괴한 미소로 성진의 팔을 잡으며) 확인해 봤는데 열쇠도 내 가방에 그대로 있어요.

난 사실 성진씨 의심했거든요. 있잖아요, 우리 그냥 있어봐요. 이대로.

거기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침착해요, 응?

미주를 바라보다가 팔을 뿌리치는 성진.

성진/ 내말대로 안하면 지금 경찰에 신고할거야.

96. 단장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직원이 들어온다. 인사를 하더니,

직원/ 지휘자님이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오후 리허설을 악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주 앉아 있던 혜연과 악장이 서로를 본다.

직원/ 그리고 악장님, 첼로 김미주씨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연/ 수고 했어요, 나가봐요.

직원이 나가고 나자 커피를 한모금 마시는 혜연.

악장/ 단장님! 어쩔 단장님 말이 딱 맞네...

죄가 없으면 이 방으로 뛰어 올 것이고, 죄가 있으면 조퇴할거다. 우아...

혜연/ 설마 했는데... 지들도 허가 찢린거지.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대리인도 같은 번호를 한 대 더 개통할 수 있는 줄은 생각도 못하니까.

(휴대폰을 들며)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97. 성진의 차안

미친 듯이 운전하는 성진. 문자음이 울린다. 조수석에 앉은 미주가 휴대폰을 보더니 성진에게 넘긴다.

수연/ 내가 문자해서 놀란거야?

휴대폰을 미주에게 돌려주고 더 액셀을 밟는 성진. 문득, 미주가 차창을 내리더니 휴대폰을 밖으로 던진다. 놀라는 성진.

성진/ 뭐하는 짓이야?

미주/ 내거잖아요. 버리는 것도 내 자유지.

성진/ 그래도...

미주/ (혼잣말처럼) 개한테 헐박 당하는 거 싫어. 별 것도 아닌 기집애가...

차창을 올리지 않고 바람을 얼굴로 맞으며 눈을 가늘게 뜨는 미주.

98. 저택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미주를 바라보고 있는 성진, 미주는 아직도 결정을 못한 듯 하다.

성진/ 어디야, 말해봐. 입구가 어디야?

미주가 책꽂이를 가리키더니 밀으라는 손짓을 한다.

책꽂이를 미는 성진. 육중한 철문이 나온다. 한숨을 쉬는 성진.

미주가 다가와 열쇠구멍에 열쇠를 꼽는다. 성진의 눈을 쳐다보는 미주, 어쩐지 슬픈 눈이다. 열쇠를 돌린다. 육중한 문이 무중력처럼 열린다.

99. 밀실

실내를 볼 겨를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연을 보고 놀라 멈춰서는 성진.

미주/ 이거봐, 여기 못나온다니까? 그 문잔 뭐지?

수연에게 다가가는 성진. 그런데 바로 앞에 서서 허리도 안 숙이고 내려다본다. 뒤에서 승리의 웃음 비슷한 미소를 띠는 미주.

미주/ 죽었어요?

성진/ 모르겠어...

미주/ 비켜봐요, 내가 볼게. 손도 대기 싫게 더럽긴 하다.

미주가 다가가 수연 옆에 쭈그리고 앉는다. 그리고는 수연의 몸을 돌려 눕히고 머리를 받힌다.

미주/ 수연아, 수연아, 괜찮아?

그래도 의식이 없는 수연, 미주가 수연의 뺨을 톡톡 친다.

미주/ 수연아, 수연아! 정신차려봐!

그러자 수연이 희미하게 눈을 뜬다. 현실인지 의식을 못해 어리둥절해 한다. 그러자 미주가 미소를 짓는다.

미주/ 이거봐, 안 죽어.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건데. (성진을 올려다보며) 겁 먹었었죠?

하이고, 이 손 발 부어터진 것 좀 봐, 얼마나 두드려 댔으면...

그런데 그 순간 수연의 눈이 크게 떠지며 몸을 일으키더니 미주의 옷을 움켜쥔다. 경악하는 미주, 수연을 떼어 놓으려 하지만 절박한 수연의 힘은 놀랍다. 미주가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 하지만 수연의 힘을 당하지 못한다. 그 상태로 성진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수연.

수연/ 어떡할거야! 결정해! 어떡할거냐구!

미주/ 좀 도와줘요! 이게 미쳤나봐!

가만히 바라보던 성진이 미주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려친다. 주먹이 절묘하게 귀 뒤 급소를 맞고 미주가 쓰러진다. 헐떡이는 수연. 성진은 쓰러진 미주는 보지도 않고 수연에게 손을 내민다. 손과 성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마주 잡는 수연. 성진이 수연을 부축해 일으킨다. 일어서더니 성진의 도움을 거절한다. 열쇠를 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수연. 그리고는 미주를 잠시 내려본다. 그러곤 성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내민다. 성진이 손을 잡자 데리고 공간을 걸어간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난다. 바닥에 미주가 조금 꿈

틀하는 거 같다.

100. 저택, 안방

밍크는 입었지만 처절한 모습의 수연이 침대에 앉아 있다. 조금 떨어져 맞은편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성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수연.

수연/ 거울 진짜 오랜만에 보네.

성진/ 난... 경찰서 갈게.

수연/ 아냐.

성진/ 응?

수연/ 아니라고.

거울에서 성진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수연.

수연/ 나 배고파.

의외의 말에 수연을 쳐다보는 성진.

성진/ 무슨 뜻이야?

수연/ 말 그대로야, 배고파. 뭐 좀 만들어 줘.

아직도 이해못하고 수연을 쳐다보는 성진, 수연이 미소를 짓는다.

성진/ 응... 그럼 어떡하지, 일단 죽같은 거 끓여야 하나?

수연/ 나 샤워부터 할게. 아무거나 만들어줘.

성진이 급하게 나간다. 다시 거울을 보는 수연. 일어서더니 떡진 밍크를 부은 손으로 힘겹게 벗는다.

101. 안방, 욕실

거울을 보고 있는 수연.

102. 밀실

바로 코앞에서 있는 미주.

103. 안방, 욕실

수연/ 바로 앞에 서 있지, 미주야? 나 이제 샤워 할거야, 뜨거운 물에.

(옷을 벗다가 킁 웃는다) 나처럼 바보같은 짓하면 알지? 물, 안 줄거야.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수연, 그러다 손을 든다.

수연/ 샤워하고 나머지 얘기하자, 미주야.

(FADE OUT)

104. 럭셔리 요양원

박선생의 휠체어를 밀며 걷고 있는 수연.

박선생/ 난 니가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내 집을 사겠다니,
역시 한수연이야.

수연/ 결혼 준비도 하고 오케스트라에도 적응하고, 게다가 다이어트도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박선생/ 드레스 입으려면 다들 다이어트 뻥세게 하더라. 근데 넌 너무 뺨 거 아니니?

수연/ 그래서 다시 좀 찌우는 중이에요.

박선생/ 그래.

휠체어를 쫓아 핀 나무 밑 벤치 앞에 멈추는 수연. 박선생이 벤치를 옮겨 앉고 수연이
곁에 앉는다 .

박선생/ 미주는, 잘 지내니?

수연/ (웃으며) 선생님은 다 아시죠?

박선생/ 니네 둘 사이? 야, 나, 선생님이야.

수연/ 히... 결혼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그렇죠, 뭐.

박선생/ 그렇겠지.

수연/ 그래도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구요.

박선생/ 난 옛날부터 널 보면서 생각했지, 재 소유욕은 아무도 못 이긴다.

결국은 다 갖는구나. 하하. 내 집까지 니 차지이 되는구나.

수연/ (웃으며) 말씀 듣다 보니 그러네요?

박선생/ 미주 말이야.

수연/ 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는 박선생.

박선생/ 미주는 널 당할 수가 없지.

수연/ (괴상한 미소를 짓고)

박선생/ 근데 집 말이야,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텐데...?

수연이 웃으며 박선생을 바라본다.

수연/ 선생님, 너무 좋아요. 제 취향에 딱이에요.

박선생/ (눈을 피하며) 좋다니 다행이구나. 나도 집을 남에게 파는 것보다는 좋고.

암튼... 그 집에서 니가 행복하면 좋겠다.

수연/ 선생님, 이미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을 가져다주는 집이에요.

수연이 박선생의 팔짱을 끼며 감사한다. 박선생은 수연의 팔짱이 좀 불편하다.

105. 저택, 화장실

이를 닦고 있는 성진, 거울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입을 행구더니 세면대에 물을 받는다. 얼굴에 물을 칠박이고는 처음으로 거울을 본다. 묵묵히 거울을 보고 있는 성진.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성진/ 일어났니?

세면대의 물이 진동한다. 다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성진. 약간 젖은 머리칼을 뒤로 쓸어 넘긴다.

성진/ 조금만 더 참아봐. 화가 거의 풀려 가는 거 같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견뎌봐. 갑자기 강하게 설득하면 도리어 더 고집부릴까봐 못 그러고 있어.

물이 진동한다.

성진/ (물을 보고 말한다) 나도 이게 최선이야. 원망해도 할 수 없어.

물이 두 번 진동한다.

106. 저택, 안방

침대에서 자는 수연의 얼굴을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며 가린다. 그 서슬에 잠이 깨는 수연. 골프복을 입은 성진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모습을 자던 자세 그대로 보고 있는 수연.

성진/ 나 땀에 갠 거야?

수연/ 아냐, 일어나야지. 라운딩 가?

성진/ 응.

수연/ 완전히 빠진 모양이네? 요즘?

성진/ 응, 재밌어. 단장님도 엄청 내가 빨리 느다고 놀라셔.

수연/ 단장님이라 그러지 말고, 어머니라 그러면 좋겠다.

가방을 챙긴 성진이 수연을 본다. 미소짓는 성진.

성진/ 오늘도 어머니랑 악장님이랑 라운딩이야.

수연/ (고개를 끄덕이고) 잘 치고 와.

성진이 다가와 수연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춘다. 눈을 감는 수연.

성진/ 갔다 올게, 좀 더 자?

성진이 가자 다시 눈을 감는 수연.

107. 안방, 욕실

세면대에 물을 받는 수연. 회색 레깅스에 역시 회색 짧은 크롭탑 차림이다. 물이 다 차자 수도를 끄고 거울을 보며 머릿줄을 입에 물고 머리칼을 뒤로 넘겨 쓸어 쥐는 수연.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는 얼굴을 이리저리 보면서 매만진다.

수연/ 미주야.

이 삼 초 후 세면대 물이 움직인다. 흘깃 보고는 계속 얼굴을 매만지는 수연.

수연/ 세계 처야지 그 정도로 처서는 물이 안 움직여.

이번에는 물이 제법 크게 파문이 인다. 만족하는 수연.

수연/ 그래. 너 먹을 거 다 떨어졌지? (파문) 그래, 내가 잠시 소홀했어. 이해해라.

내가 이것저것 바빴거든. 교수하는 거 은근 빠세.

그 핑계로 내가 우리 미주 배고프게 했네? 미안 미안.

거울에서 떨어지는 수연. 얼굴이 약간은 차갑게 바뀐다.

수연/ 내가 미안해해서... 고맙지?

세면대 물이 크게 파문이 인다.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돈다. 거울을 뚫어지게 보던 수연이 나지막히 말한다.

수연/ 들어가서... 예뻐해 줄까?

잠시 침묵하던 물에 파문이 한 번 인다.

108. 저택, 주방

슈퍼 봉지에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 담는 수연.

109. 저택, 안방

책꽂이를 미는 수연. 육중한 철문이 나온다. 전과 다른 점은 철문에 호텔 문에 흔히 달린 짧은 사슬에 용접되어 있다. 철문을 열고 그 틈으로 안을 보는 수연. 미주가 침대에 앉아서 이쪽을 보고 있다. 의외로 깨끗한 모습에 옷도 예쁜 편이다. 그런데 발목에는 족쇄를 하고 있다.

수연/ 확인.

족쇄가 단단히 잠긴 것을 확인시켜주는 미주.

수연/ 열쇠 던져.

족쇄의 열쇠를 던지는 미주. 쨍그랑하며 수연의 앞쪽에 떨어지는 열쇠. 그제야 사슬을 풀고 안으로 들어가는 수연.

110. 밀실

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밀실. 침대에는 폭신한 매트와 구스다운의 이불이 있고, 작은 냉장고도 있다. 냉장고 위에는 티비 모니터가 있다. 세면대에는 접착형 선반도 달려서 미주의 화장품들이 있다. 문입구에 던져진 족쇄 열쇠 옆에 문 열쇠를 나란히 놓는 수연. 그리고는 냉장고로 가서 봉지에 가져온 것들을 넣는다. 미주는 물끄러미 보고 있다. 비워진 봉지를 잘 접어 냉장고에 올려놓는 수연.

그리고는 실내를 둘러보며 미주에게 다가간다. 수연을 올려다보는 미주. 미주 앞에 서서 내려다보는 수연. 수연이 천천히 손을 뻗어 미주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수연을 올려다보

던 미주가 침대밖에 내려뜨렸던 족쇄로 묶인 다리를 침대 위로 올린다. 그 동작에 쇠사슬이 절그럭하고 소리를 낸다.

그 순간 암전된다. 티비 소리가 점차 미주의 허밍으로 나오는 즉흥곡 3번과 맞바뀌지고 크레딧이 오른다.

끝